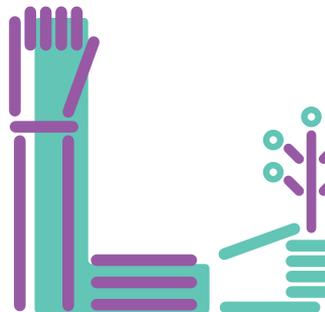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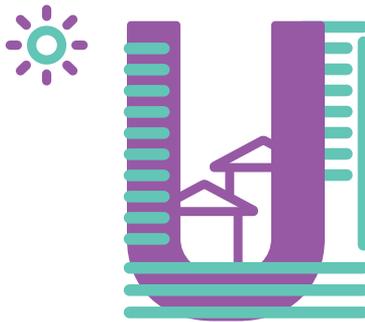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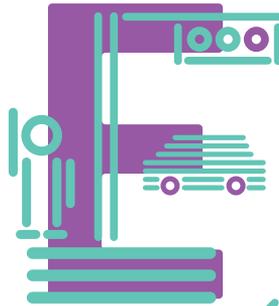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Seoul at a Glance 2015

한 눈에 보는 서울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I·SEÒUL·U

Seoul at a Glance 2015

한 눈에
보는 서울

Contents

004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 006 1. 보통 가구
- 008 서울의 보통가구는?
- 010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 012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014 서울의 1인 가구는?
- 016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 018 2. 보통 사람
- 020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022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 024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 026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 028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 030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은퇴 시기는?
- 032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평생 교육은?
- 034 서울에 살고 있는 청·장년층의 특성은?
- 036 청장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 038 청장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 040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042 II. 서울의 사회생활

- 044 1. 생활만족도
- 046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048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050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 052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 054 서울시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056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 058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 만족도는?
- 060 서울시민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 062 서울시민의 에너지 절약 방법은?

- 064 2. 생활환경
- 066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 068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 070 서울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의 변화는?
- 072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 074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 076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 078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 079 서울의 NO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 080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Contents

082 III. 서울의 웰빙

- 084 서울시민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 086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 088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 090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092 IV. 서울의 시민의식

- 094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 096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 098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 100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 102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104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 106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 108 청장년층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현주소는?

110 서울서베이란?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Average Household Average People in Seoul

1. 보통 가구

- ◆ 서울의 보통가구는?
- ◆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 ◆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 서울의 1인 가구는?
- ◆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2. 보통 사람

- ◆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 ◆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 ◆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 ◆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은퇴 시기는?
- ◆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평생 교육은?
- ◆ 서울에 살고 있는 청·장년층의 특성은?
- ◆ 청장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 ◆ 청장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 ◆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I. 보통 서울 보통 서울



서울의 가구주 대표 성별
Dominant Gender of
Householders in Seoul

49

서울의 가구주 평균 연령
Average Age of Householders
in Seoul

56.4

전문대 이상 가구주 비율
% of Householders with
College Degree or Higher

2.65

서울 보통가구 가구원 수
Average Household Size

24.4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 of One-Person Household in Seoul



14.7

베이비붐 세대 비율
% of Baby Boomers in Seoul

65-69

희망은퇴시기
Most Preferred Retiring Age

20.3

서울의 청장년층(25-34세) 비율
% of Young Adults in Seoul

67.5

청장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율
% of Young Adults Living in
a Rented House



11.8

고령인구 비율
% of the Elderly in Seoul

Average Average in Seoul

1. 보통 가구

**Average
Household**



서울의 보통가구는?

Average Households in Seoul

보통 가구주 Average Householders: Age, Gender, and Education Level



평균 가구원수 Average Household Size

2.65 명

월평균 소득 대표값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Mode)

300-400 만 원

2014년 서울의 보통 가구주는 평균 연령 49세, 남성,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2.65명이며 전체 가구의 42.8%가 월평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소득 계층이다.

25개 자치구 중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주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주로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에 집중되어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Distribution of Average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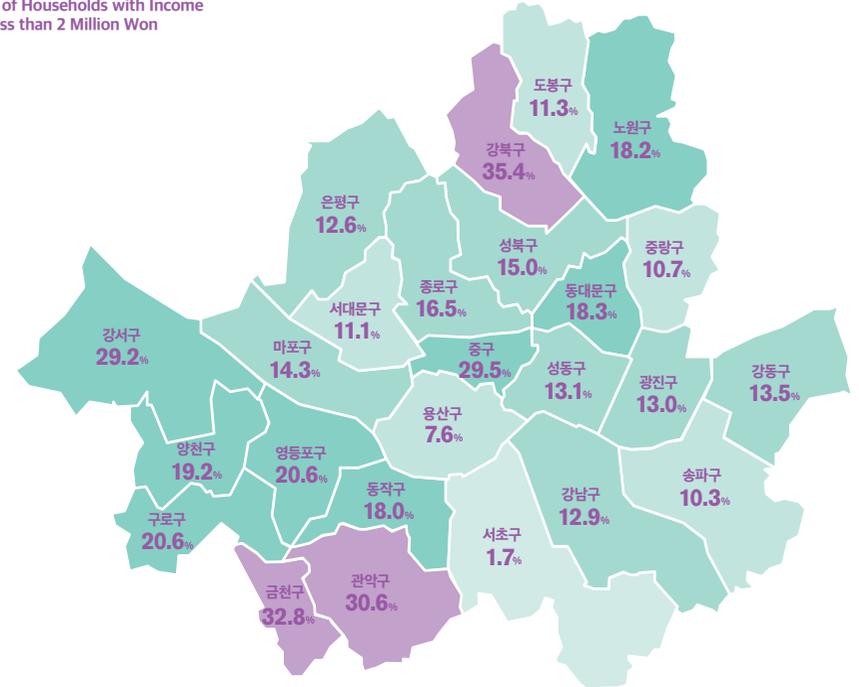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200만원 이하 소득자 비중

% of Households with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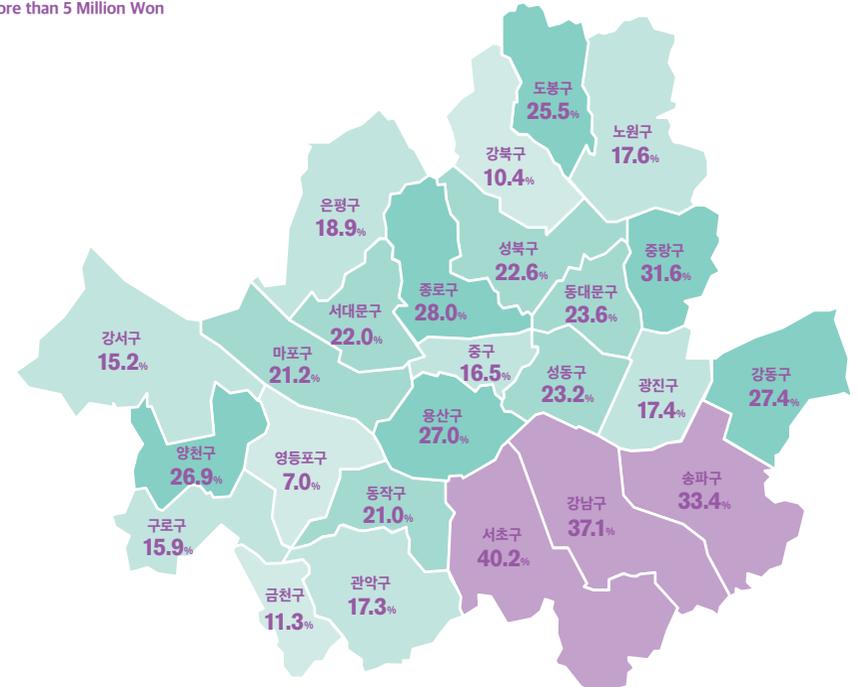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5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중

% of Households with Income more than 5 Million Won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서울 가구주의 학력은?

Average Householders in Seoul: Educational Attainment

2014년 서울 가구주의 33.6%는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56.4%에 달한다.

가구주 학력 수준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으로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의 고학력(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가구주의 비중은 각각 78.8%, 69.9%, 67.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강북구, 금천구, 양천구는 각각 28.9%, 35.5%,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학력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구일수록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아 가구주의 학력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대 이상 가구주 % of Householders with College Degree or Higher

56.4 % 

4년제 대졸자 이상 가구주 % of Householders with Bachelor's Degree or Higher

33.6 % 

구별 고소득 가구주 비율

% of Households Earning 5 Million Won or More by District

주: 고소득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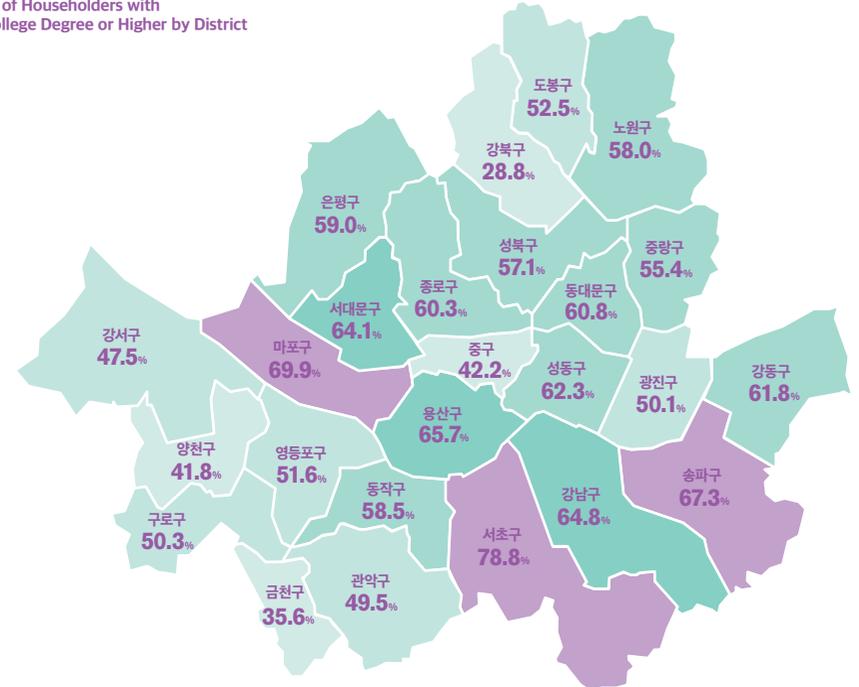
	500만원 이상(%)
종로구	28.0
중구	16.5
용산구	27.0
성동구	23.2
광진구	17.4
동대문구	23.6
중랑구	31.6
성북구	22.6
강북구	10.4
도봉구	25.5
노원구	17.6
은평구	18.9
서대문구	22.0
마포구	21.2
양천구	26.9
강서구	15.2
구로구	15.9
금천구	11.3
영등포구	7.0
동작구	21.0
관악구	17.3
서초구	40.2
강남구	37.1
송파구	33.4
강동구	27.4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전문대 이상 가구주 비율

% of Householders with College Degree or Higher by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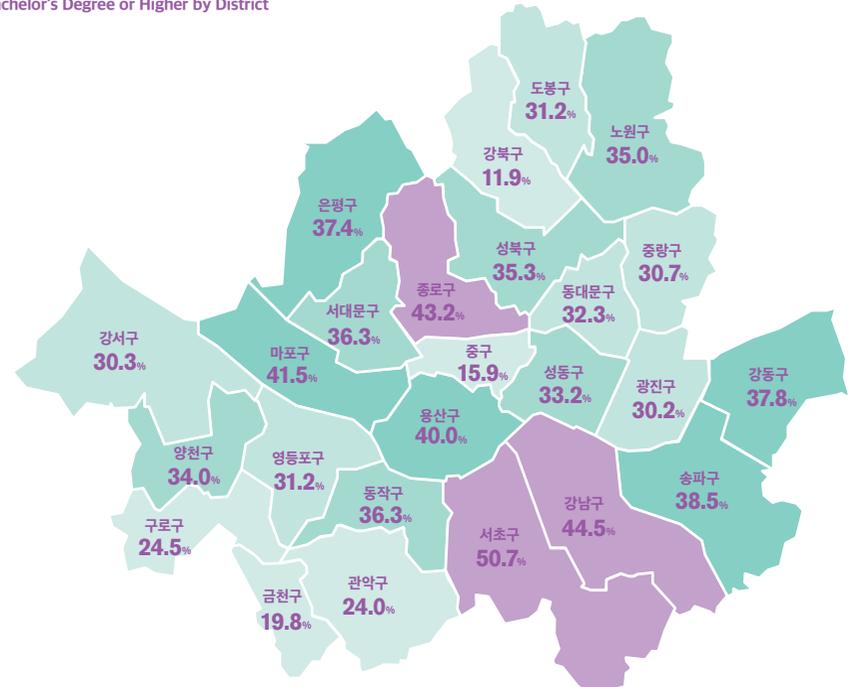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4년제 대졸자 이상 가구주 비율

% of Householders with Bachelor's Degree or Higher by District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Average Household Size in Seoul

서울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 2.63명에서 2014년 2.41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0.22명이 감소하였다. 서울의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한 데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꺼리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결혼한 남녀는 총 64,823쌍으로 1990년의 103,843쌍에 비해 무려 37.6%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26세에서 32.81세로 4.55세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5.54세에서 30.68세로 5.14세 증가하였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및 만혼(晩婚)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 즉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는 1993년 1.558명에서 2014년 0.983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Average Household Size



서울의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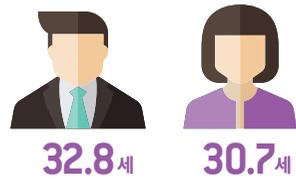
전국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Nationwide)



2014년 결혼한 남녀 Number of Marriages as of 2014



초혼 연령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by Gender



가구원수

Average Household Siz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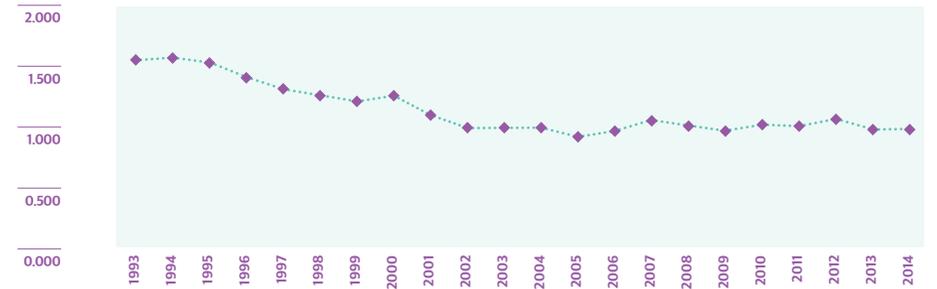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합계출산율(서울)

Total Fertility Rate (Seoul)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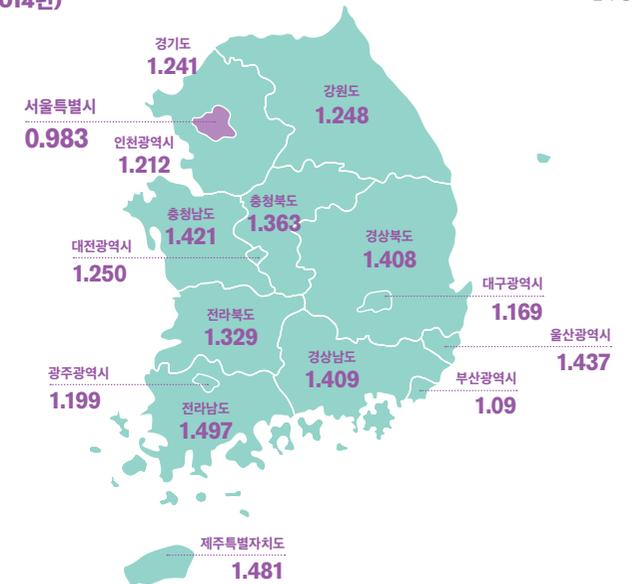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합계출산율(2014년)

Total Fertility Rate as of 2014 by Provinc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Female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How Many and Where

서울의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은 남성보다 높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52.7%로 남성의 47.3%에 비해 5.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2.6%인 여성 1인 가구는 25개 자치구 중 특히 강남구, 관악구, 용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 전체 여성 1인 가구의 23.9%가 집중되어 있다.

결혼 기피, 취업 등으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비율 %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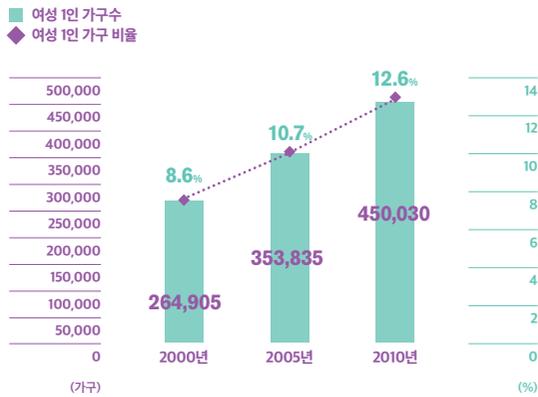


여성 1인 가구 중 20~30대 비율 %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at the Age of 20s to 30s



전체가구 중 여성 1인가구 규모 및 비중 Size and %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by Year

출처: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인구부문)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분포 % of One-Person Households by Gender and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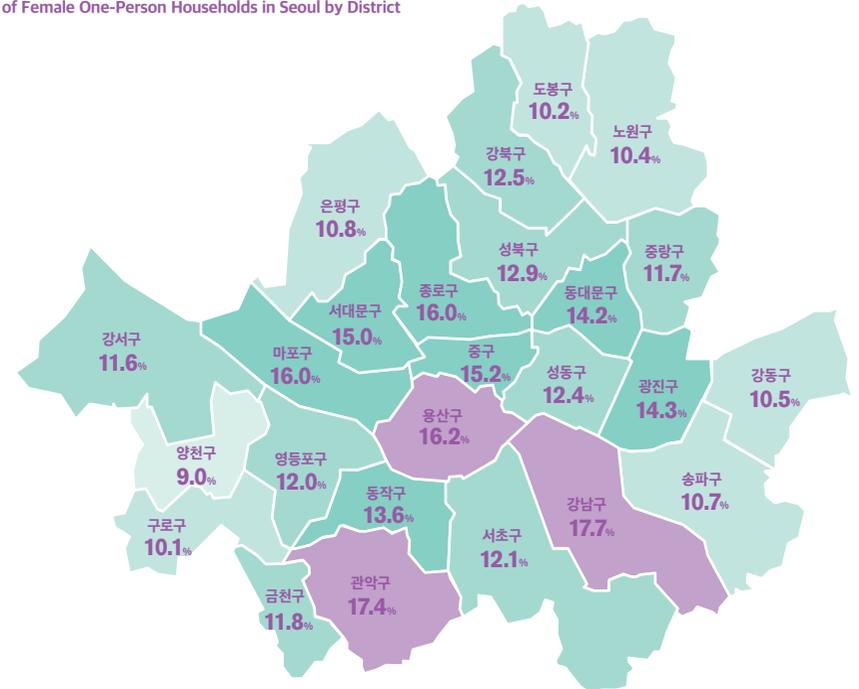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구별 여성 1인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 of Female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by District



서울시 1인가구의 성별 연령 분포(2010년 기준)

출처: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인구부문)

% of One-Person Households in Seoul by Gender and Age Groups (as of 2010)

(단위: %)



2. 보통 사람

Average People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규모와 결혼 상태는?

Baby Boomer Householders in Seoul: Family Size and Marital Status

한국전쟁 이후 다산시기에 출생하여 급속한 근대화과 산업화를 거친(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런 통과 의례였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43.7%는 4인 이상의 가구를 꾸리고 있었으며, 5인 이상의 비율은 9.6%에 달한다. 1~2인의 초소형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추이와는 상이한 모습이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76.1%는 기혼자인 반면 미혼자는 1.6%에 불과했다.

4인 이상 가구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a Family Size of 4 or Above



5인 이상 가구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a Family Size of 5 or Above



기혼자 비율 % of Married Baby Boomer Househo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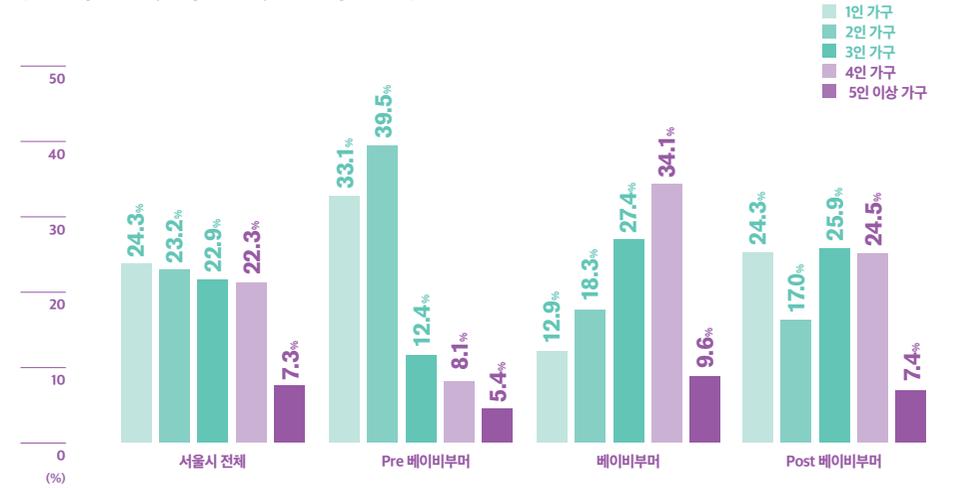


미혼자 비율 % of Unmarried Baby Boomer Householders



가구주 세대별 가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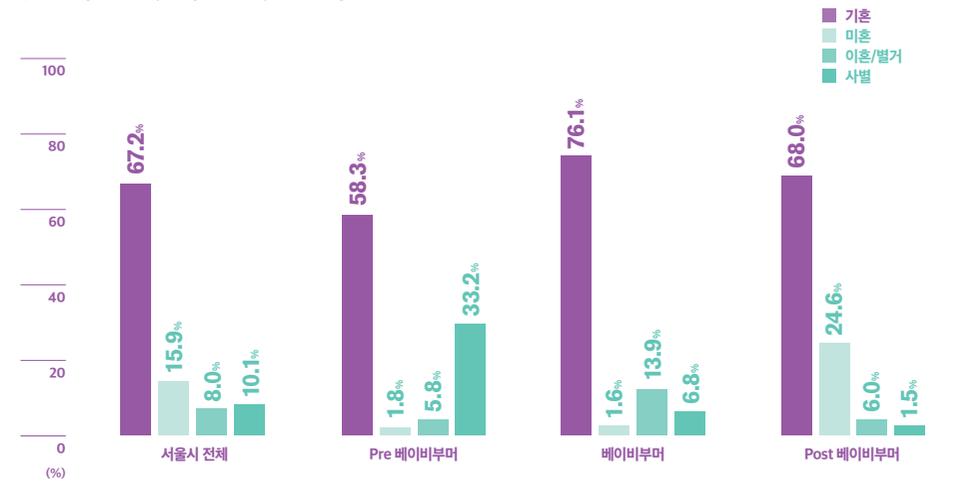
Family Size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가구주 세대별 결혼상태

Marital Status of Householders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특성은?

Baby Boomer Householders in Seoul: Housing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베이비붐 세대에겐 '내 집 마련'은 일생의 꿈이자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었다. 따라서 내 집 소유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애착은 유달리 강할 수밖에 없었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은 61.3%로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인 27.4%에 비해 33.9% 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집에 대한 세대 간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Owning Their Own House

61.3%



베이비붐 이후 세대 가구주의 자가 소유 비율 % of Post-Baby Boomer Householders Owning Their Own House

27.4%



주택형태(가구주)

Types of Housing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Post 베이비 부머
단독주택	40.6	44.3	38.7	39.7
아파트	41.0	37.3	41.2	39.2
다세대 주택	14.2	13.1	14.5	14.5
연립주택/빌라	6.2	6.2	5.6	5.5

주택점유형태(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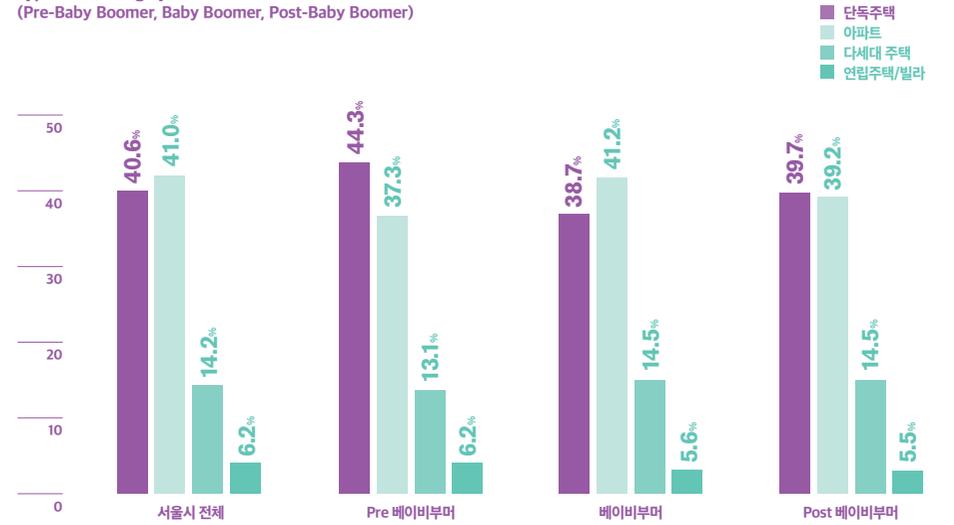
Tenure Choice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서울시 전체	Pre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Post 베이비 부머
자가	41.2	57.2	61.3	27.4
전세	32.9	21.1	23.0	42.0
보증부월세	18.8	18.8	11.3	23.1
월세	6.1	3.9	3.1	7.0
무상 및 기타	0.7	1.2	0.5	0.5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가구주 세대별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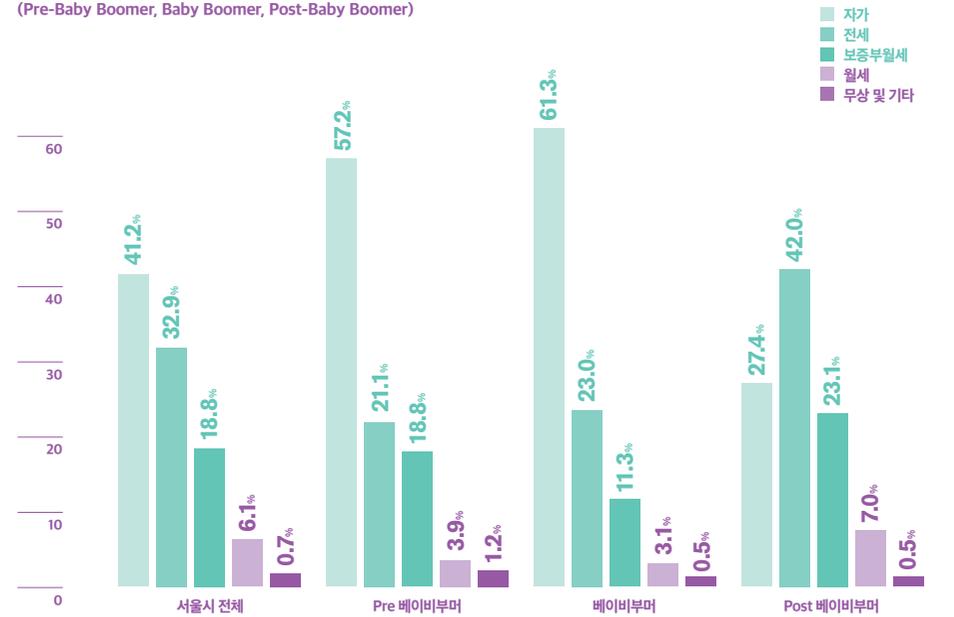
Types of Housing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가구주 세대별 주택점유형태

Tenure Choice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베이비붐 세대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은?

Baby Boomer Householders in Seoul: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주역이었던 만큼 인적 역량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특히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학력 수준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다. 전자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 비율은 16.1%에 불과하며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 비율이 83.9%에 달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주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은 45.5%로 전자에 비해 29.4% 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직업적으로도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 관리전문직 및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높다. 후자의 경우 두 직업의 비율이 7.7%에 불과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32.6%로 무려 4.3배 높게 나타난다.

고졸 이하 학력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High School Diploma or Below



전문대 이상 학력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College Degree or Higher



관리전문직 및 화이트칼라의 비중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White-Collar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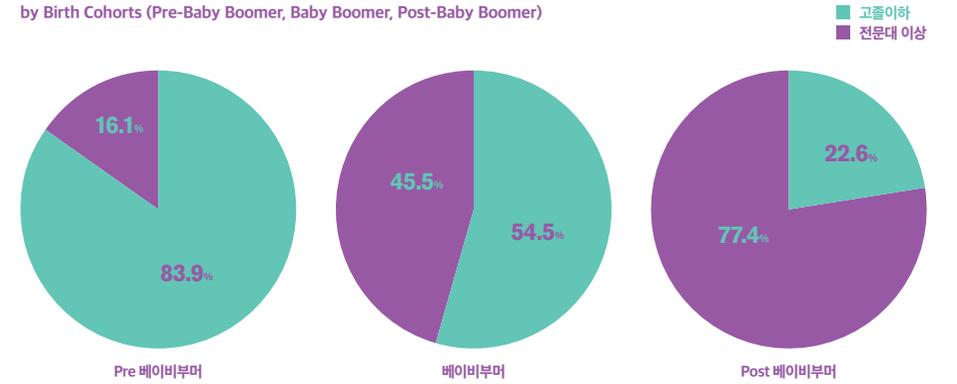
베이비붐 이전 세대 관리전문직 및 화이트칼라의 비중 % of Pre-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White-Collar Jobs



가구주 세대별 학력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ers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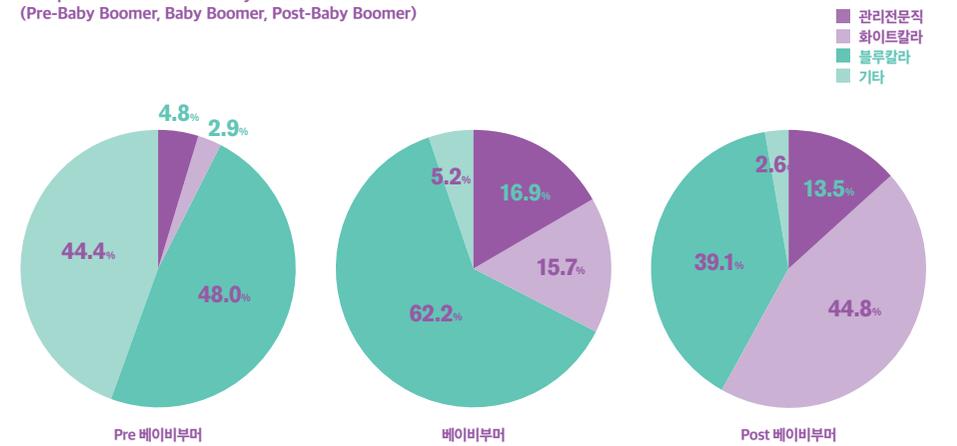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가구주 세대별 직업

Occupation of Householders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부채 특성은?

Baby Boomer Householders in Seoul: Debt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부채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구매 및 임차에 있다. 부채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주의 61.5%가 자가 소유자였으며 베이비붐 세대주 응답자의 57.2%가 주택 구매 및 임차를 부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201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담보 또는 신용 대출 중에서 거주 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42.8%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 가구의 상당수가 주택 임차 및 구매로 인해 금융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주의 부채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Debt



부채있는 베이비붐 세대주 중 자가소유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Owning Their Own House with Debt (Seoul)



주택 구매 및 임차로 인한 부채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Debt Due to Housing (Seoul)



대출 용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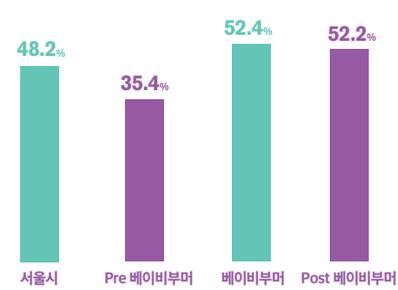
Household Loan by Use as of 2014 (Nationwide)

대출용도	2014년
합계	100.0%
거주주택마련	36.0%
거주주택이외부동산 마련	16.1%
전·월세보증금마련	6.8%
부채 상환	2.9%
사업자금마련	25.7%
생활비 마련	6.2%
기타	6.3%

출처: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세대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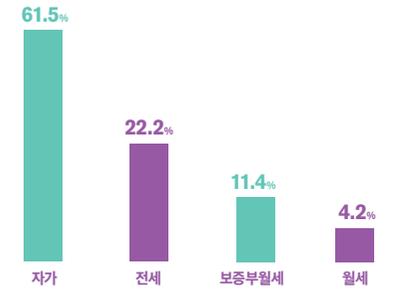
% of Householders with Debt by Birth Cohorts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베이비부머 중 부채있는 사람들의 집소유형태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Debt by Tenure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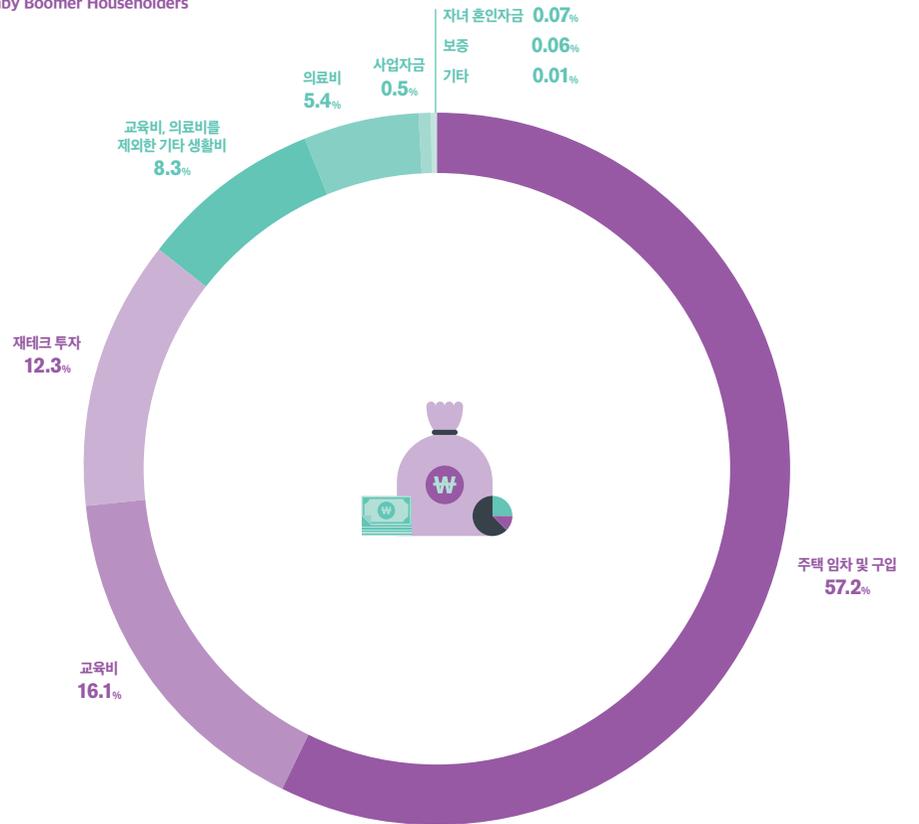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베이비부머의 부채이유

Sources of Debt for Baby Boomer Householders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은퇴 시기는?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2026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 은퇴 후 삶을 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은퇴에 임박해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일하고 싶어한다.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45.3%는 적정 은퇴 시기로 65~69세를, 은퇴 후 희망 소득으로 200~300만 원 미만 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1.3%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여전히 노동 의지가 있고 좋은 인적 자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사회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Baby Boomer Householders in Seoul: Preferred Retiring Age and Income

희망 은퇴 시기 Most Preferred Retiring Age



은퇴 후 희망 소득 Most Preferred Income Range after Retiring



세대별 희망 은퇴시기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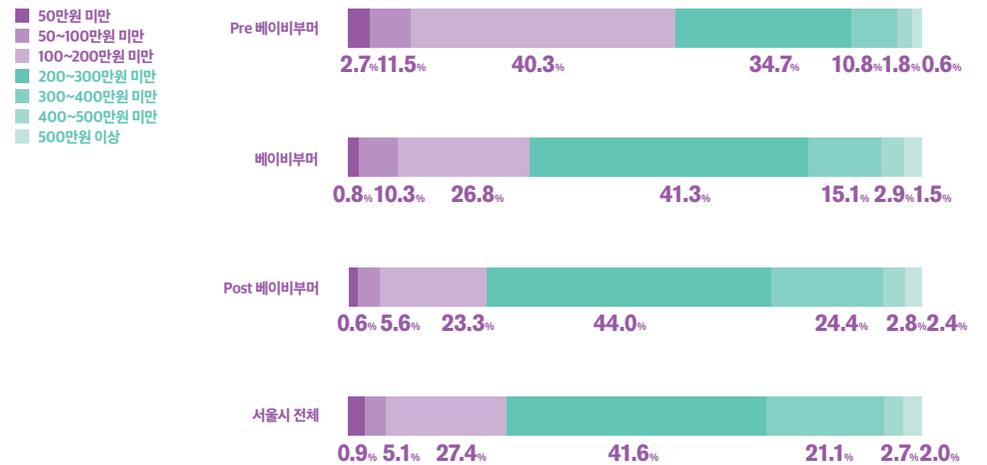
Preferred Retiring Age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세대별 은퇴 후 희망 소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Preferred Income Range after Retiring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평생 교육은?

Baby Boomer Householders in Seoul: Lifelong Education

은퇴 후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은퇴는 휴식 보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더욱이 100세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은퇴 후 삶은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기계발의 필요성과 가치는 은퇴 후 더 큰 가치와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의 시대이다.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68%는 평생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미, 문화, 교양 관련 교육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육을 받아본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비율이 21.9%에 불과해 이들의 평생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 희망자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Hoping for Lifelong Education

68%



평생 교육 경험 비율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with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21.9%

취미, 문화, 교양 관련 교육 희망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Interested in Hobby and Culture-Related Lifelong Education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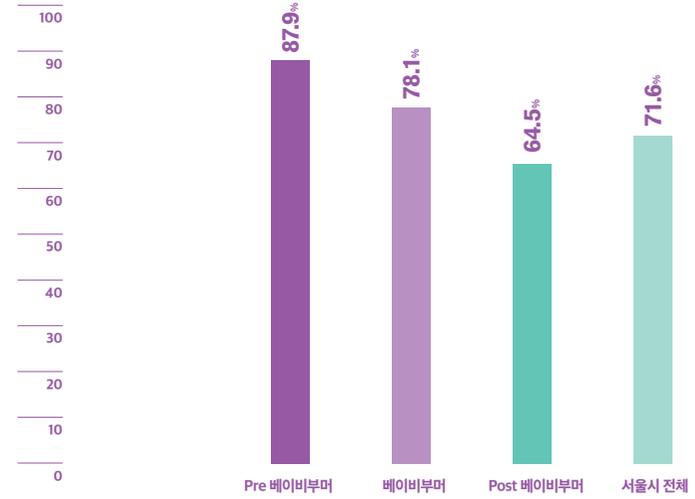


컴퓨터 관련 교육 희망 % of Baby Boomer Householders Interested in Computer-Related Education

34.9%

평생교육 비경험율

% of Householders without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by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희망하는 교육

Preferred Lifelong Education by Subjects and Birth Cohorts (Pre-Baby Boomer, Baby Boomer, Post-Baby Boome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서울에 살고 있는 청·장년층의 특성은?

Young Adults Aged 25 to 34 in Seoul

25~34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집단으로 미래 서울의 성장의 주역이다.

서울시 인구의 20.3%가 25~34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이다. 이들 중 49.5%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서비스와 판매업 종사자는 각각 10.9%, 11.5%를 차지했다.

사회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인 청장년층의 경제 기반은 약하다. 청장년 세대 응답자의 주택 자가소유 비율은 32%이며, 전·월세의 비율은 67.5%에 달한다. 청장년 10명 중 6~7명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다.

25~34세 비율 % of Young Adults



사무직 종사 비율 % of Young Adults with Office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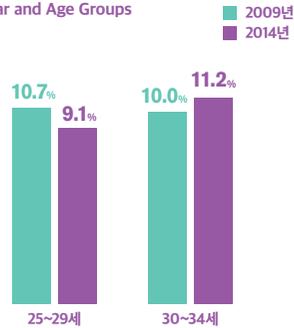


전·월세의 비율 % of Young Adults Living in a Rented House



서울의 청장년 구성비

% of Young Adults by Year and Age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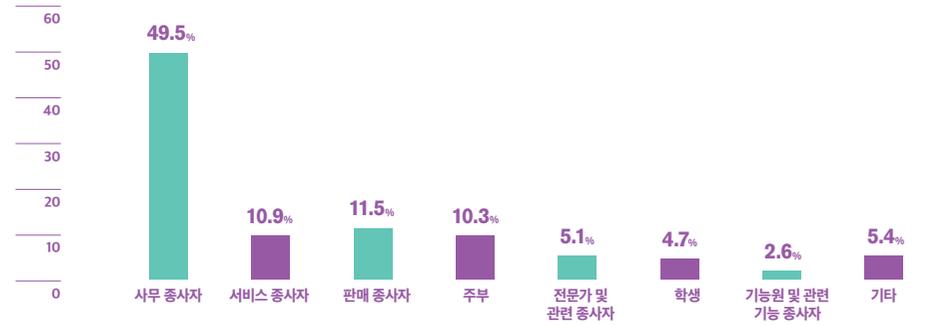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직업 특성

Types of Occu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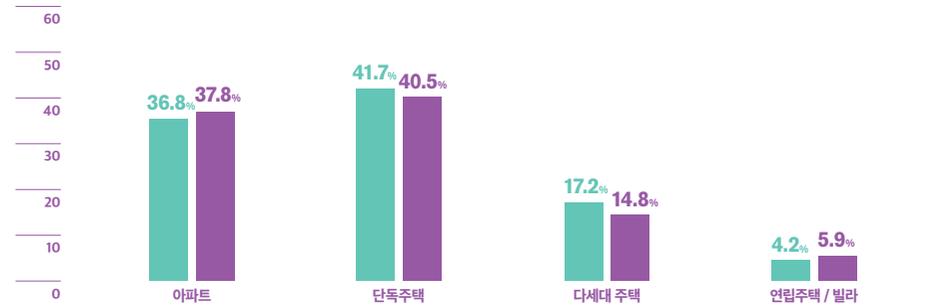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주거 특성

Types of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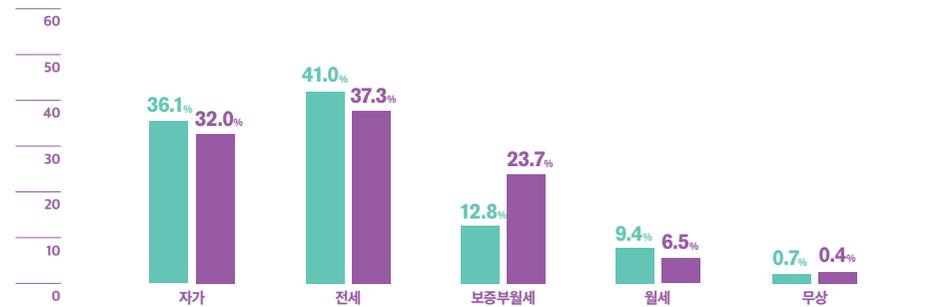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주거점유 형태

Occupied Housing Types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청장년층은 누구와 살고 있을까?

Young Adults Aged 25 to 34 in Seoul: Living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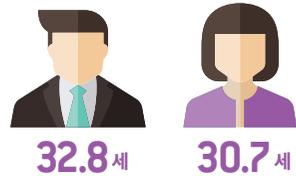
2010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서울의 미혼 청장년층은 전체 청장년층의 68.2%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시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2014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32.8세, 30.7세로 2000년의 29.7세, 27.3세에 비해 3살 정도 높아졌다.

서울의 미혼 청장년층의 57.8%는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42.2%는 1~2인 가구형태였다. 서울의 청장년 10명 중 5~6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생활을 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미혼 비율 % of Unmarried Young Adults



초혼 연령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by Gender



1~2인 가구 비율 % of One- or Two-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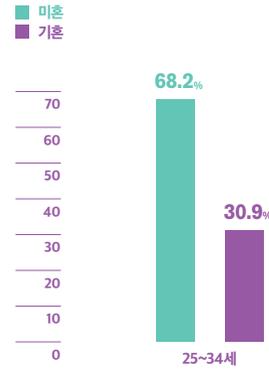


3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 % of Young Adults Living with 3 or More Family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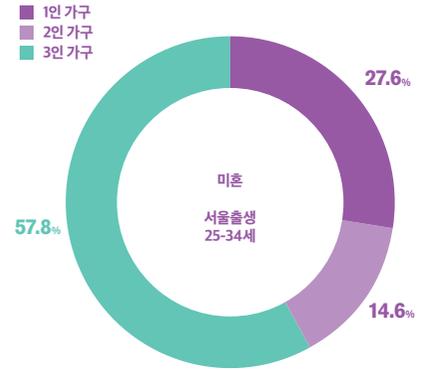
결혼 상태 출처: 통계청, 2010,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Marital Status



미혼 청장년층의 가구구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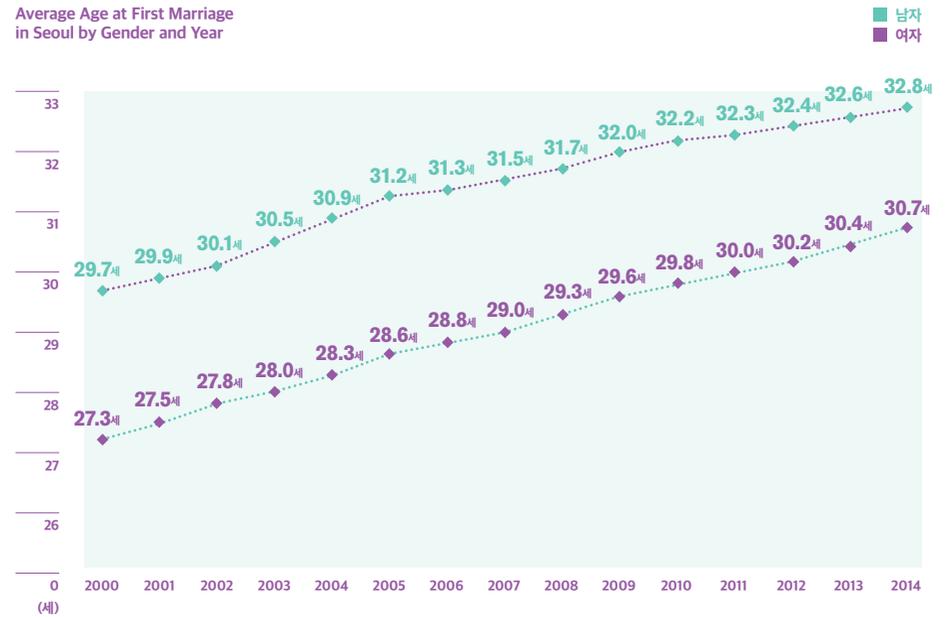
Living Arrangement



서울시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00-2013)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in Seoul by Gender and Year



청장년층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Young Adults Aged 25 to 34 in Seoul: Social Activities

결혼을 미룬 채 갱겨루족 생활을 하는 서울의 많은 청장년층은 개인 중심적 생활 습관에 익숙하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장년층 응답자의 22.3%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장년 10명 중 적어도 2명은 아무런 사회 활동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한 셈이다.

서울의 청장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단체 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56.9%(중복응답)를 차지한 동창 모임이었다. 학원 중심의 사회 모임이 이들이 가진 사회 자본의 가장 큰 원천임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친목회가 24.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의 청장년층은 자원봉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서울시 청장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17%에서 2014년 9.6%로 급감하였다. 청장년 10명 중 채 1명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사회활동 미참여 비율 % of Young Adults Participating in No Social Activities as of 2014

22.3%

동창 모임 % of Young Adults Participating in Alumni Meeting

56.9%



친목회 % of Young Adults Participating in Social Gathering

24.8%

자원봉사 참여율 % of Young Adults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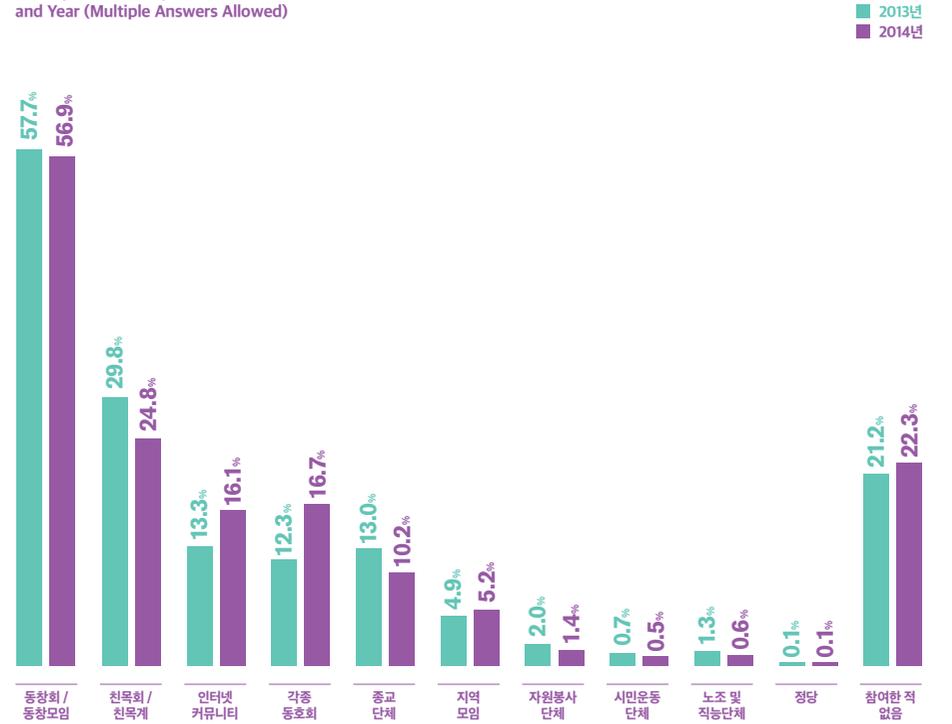
9.6%



사회 연결망(중복응답)

Participation Rate by Social Activities and Year (Multiple Answers All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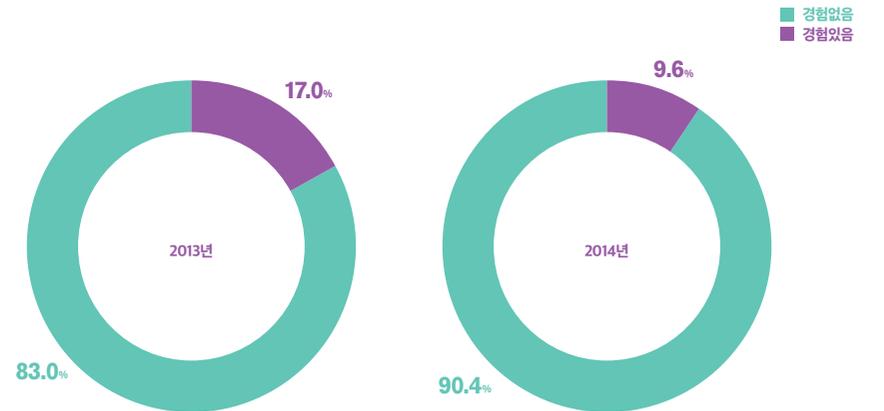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Volunteering Rate by Yea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서울의 고령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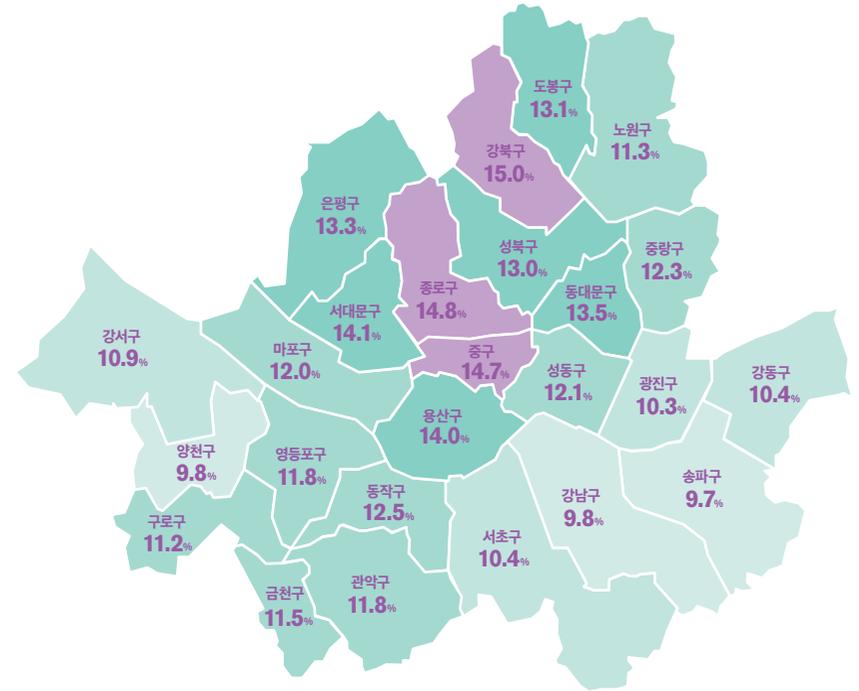
The Elderly Aged 65 or More in Seoul: How Many and Where

서울은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1%를 넘어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섰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다시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초고령 사회가 된 미래 서울에서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 즉 노년부양비는 29.1명으로 추계된다. 이는 2005년의 9.3명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구별 고령인구 비중
% of the Elderly by District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http://stat.seoul.go.kr)



2014	합계
전체인구	10,369,593
65세이상인구	1,221,616
비중(%)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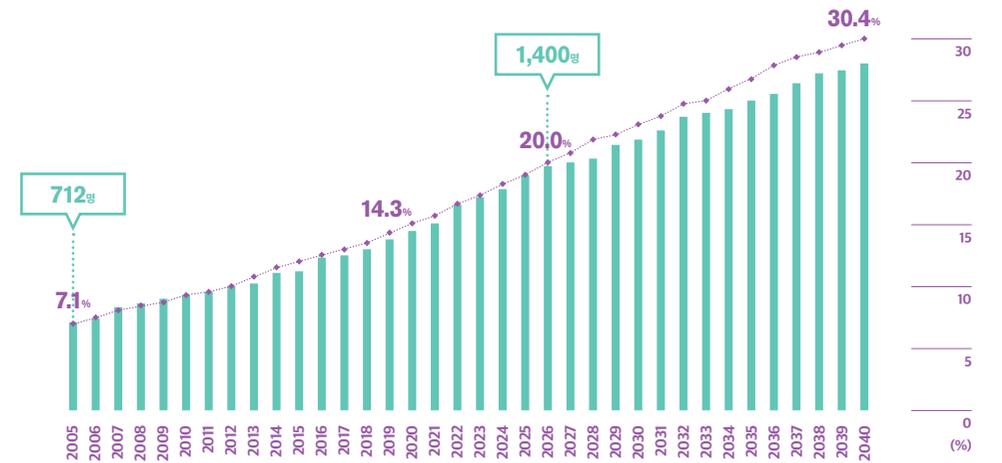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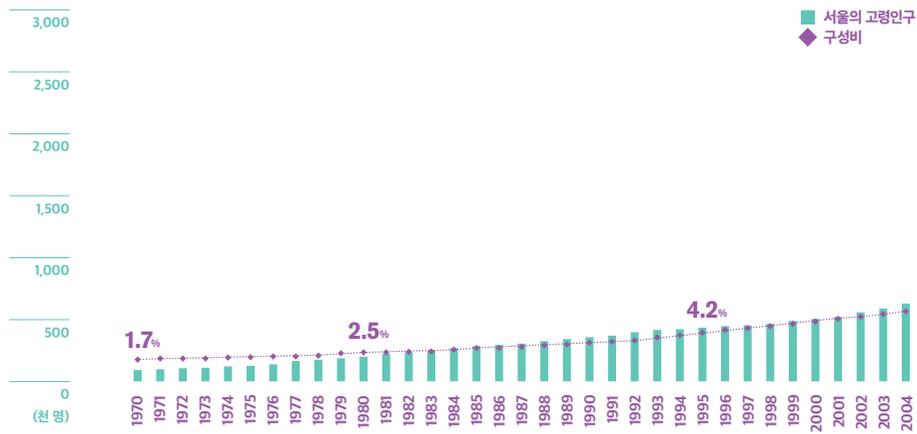
2014년 고령인구 비율 % of the Elderly in Seoul as of 2014



고령인구 비중

Size and % of the Elderly in Seoul by Year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년 12월 갱신 기준)



II. 서울의 사회생활

Everyday Life in Seoul

1. 생활만족도

- ◆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 ◆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 ◆ 서울시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 ◆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 만족도는?
- ◆ 서울시민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 ◆ 서울시민의 에너지 절약 방법은?

2. 생활환경

-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 ◆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 ◆ 서울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의 변화는?
- ◆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 ◆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 ◆ 서울의 화재 발생 추이와 피해액은?
-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 ◆ 서울의 NO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 ◆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II. 서울의

5.26

서울 시민의 경제환경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6.21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Conditions

6.13

서울시 주거환경 평균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Conditions



희망 주거 형태 1위
: 아파트
Most Preferred Housing Type:
Apartment



서울시 수송분담율 1위
: 지하철·철도
Dominant Modal Share
: Subway and City Trains

6.47

대중교통 종합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46 ($\mu\text{g}/\text{m}^3$)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in Seoul

0.033 (ppm)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
Average Concentration of
NO₂ in Seoul

Everyone
in Seoul

1. 생활만족도

**Satisfaction
with Living**



경제생활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How Satisfied Are People in Seoul with Their Own Economic Conditions?

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자신의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는 2014년 5.26점(10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32점 하락하였다.

지역별 경제생활 만족도는 동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각각 4.63점, 4.66점, 4.73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양천구, 종로구, 강남구는 각각 5.88점, 5.84점, 5.7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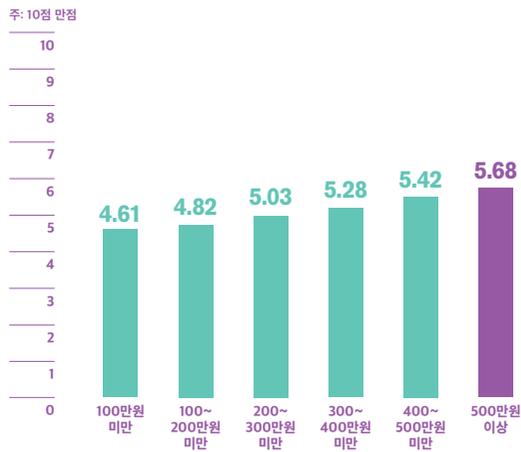
경제생활 만족도는 가구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 가구소득 가구의 경제생활 만족도가 5.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00~500만원 소득가구가 5.42점, 300~400만원 소득가구가 5.28점의 순으로 경제생활 만족도를 나타냈다. 3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제생활 만족도 평균은 5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는 가장 낮은 4.61점을 나타냈다.

2014년 서울 시민의 경제생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as of 2014



소득별 경제생활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verag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by Income



경제생활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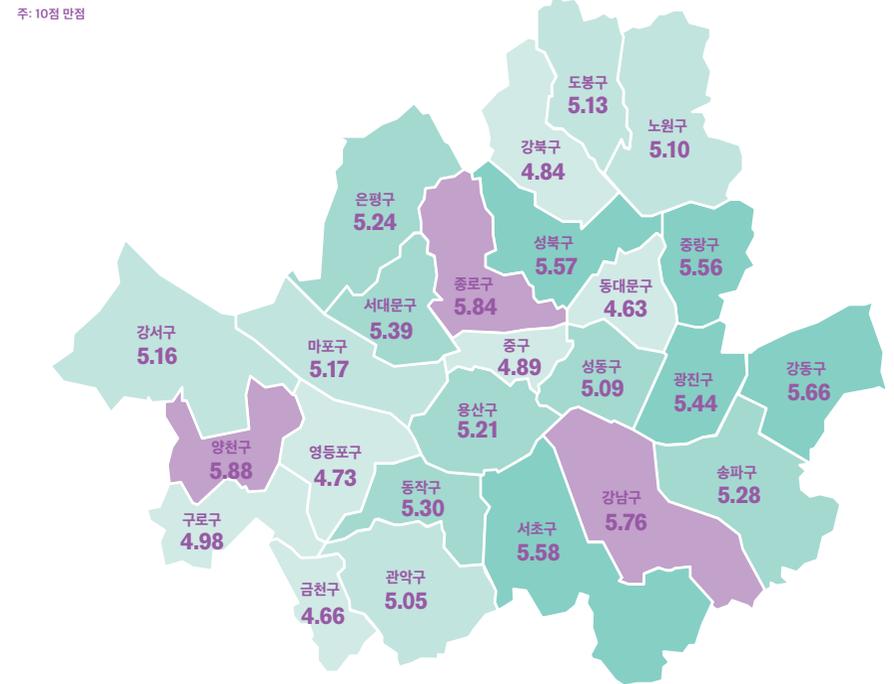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구별 경제생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by District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주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How Satisfied Are People in Seoul with Their Own Residential Conditions?

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자신의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평균 6.1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한 점수다. 그러나 2005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주거 환경에 대한 서울 시민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6.85점, 6.77점, 6.43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는 각각 5.23점, 5.47점, 5.5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Averag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Conditions by Year



서울시 주거환경 평균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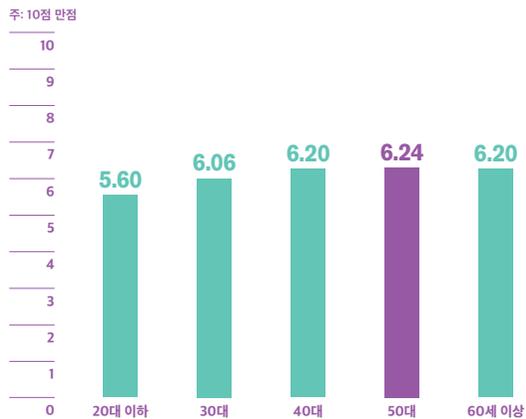
6.13 점

서초구 주거환경 평균 만족도 Highest Satisfaction in Seocho District

6.85 점

연령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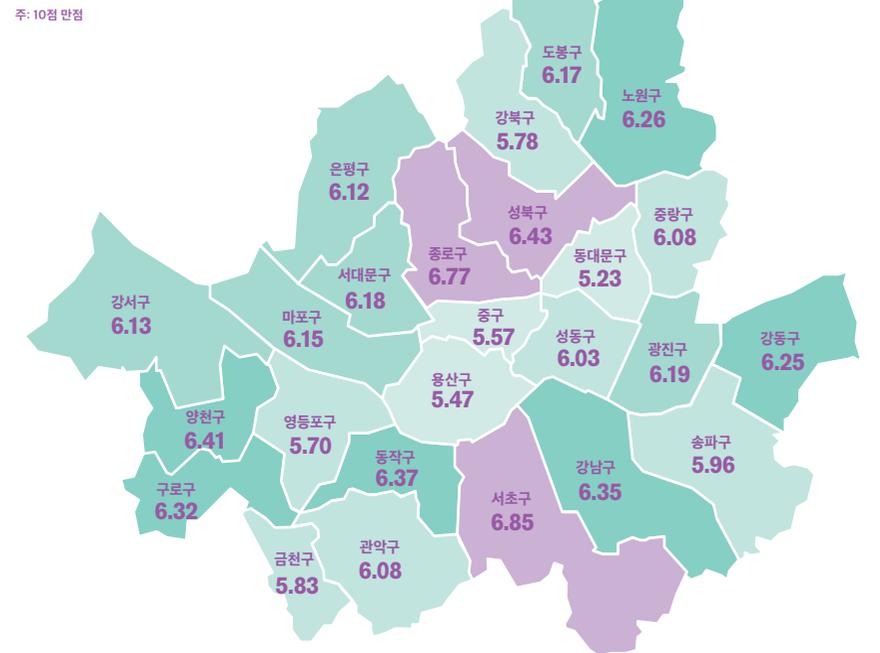
Averag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Conditions by Age Groups



구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verag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Conditions by District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How Satisfied Are People in Seoul with Their Own Financial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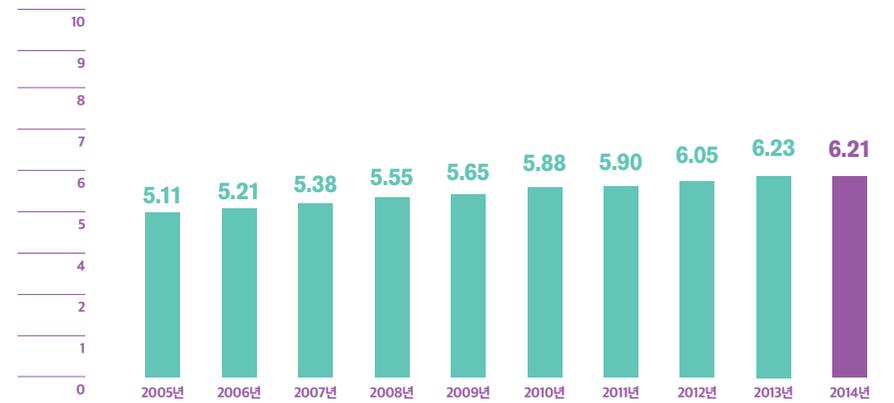
팍팍해진 살림살이, 얼어붙은 경기 탓에 2014년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는 6.21점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강, 유대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다른 4개 평가 영역에 비해 재정상태의 평균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평균으로는 금천구, 강북구, 중구가 각각 4.98점, 5.65점, 5.74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강동구, 강남구, 양천구가 각각 6.92점, 6.65점, 6.6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연도별 재정상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Conditions by Year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2014년 서울시민의 재정상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Conditions as of 2014

6.21 점



재정상태 만족도 증가율 Compared to 2005, Increased by

21.5 %



서울시민의 영역별 만족 지수 변화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verage Satisfaction by Domain and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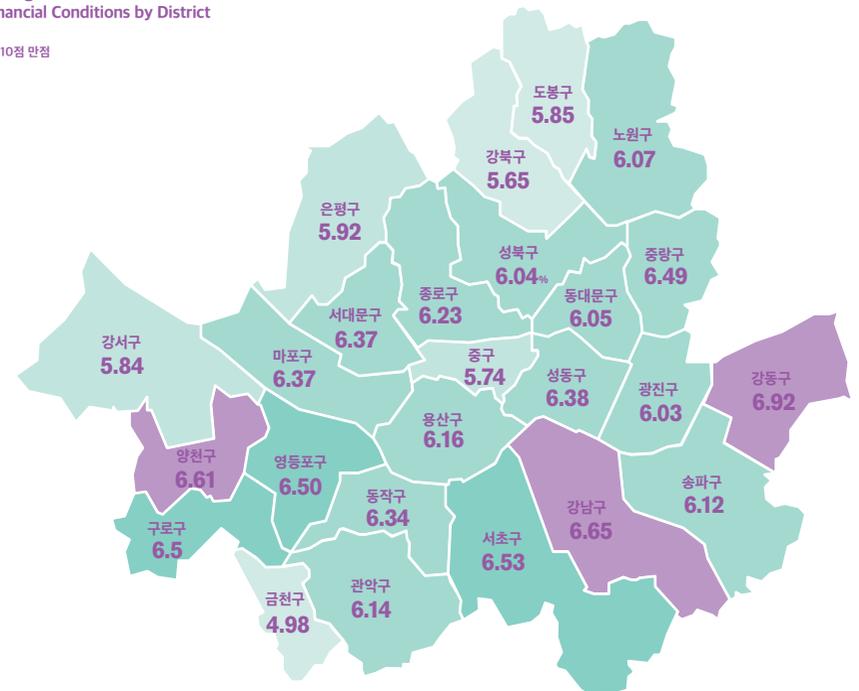
주: 10점 만점

연도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지/친구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05년	6.60	5.11	6.71	6.86	6.44
2006년	6.63	5.21	6.75	6.85	6.54
2007년	6.72	5.38	6.74	6.82	6.50
2008년	6.88	5.55	6.73	6.81	6.57
2009년	6.88	5.65	6.75	6.82	6.60
2010년	6.88	5.88	6.75	6.80	6.64
2011년	6.90	5.90	6.82	6.89	6.73
2012년	7.06	6.05	6.90	6.99	6.84
2013년	7.15	6.23	6.95	7.03	6.94
2014년	7.16	6.21	7.08	7.14	7.01

구별 재정상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Conditions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위치는?

Social Class Identification in Seoul: I Belong to...

2009년~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70% 이상의 응답자가 스스로를 중산층(중상, 중하)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중산층 의식은 소득 및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졸 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79% 이상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81% 이상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지한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47.9%만이, 1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22.8%만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서 모두 '중하' 응답자의 비중이 '중상' 응답자의 비중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2014년에는 51.6%의 서울 시민이 '중하' 계층 귀속감을, 21.0%는 '중상' 계층 귀속감을 나타냈다.

2014년 '중하' 응답자 비율 % of People Saying 'Lower Middle Class' as of 2014



2014년 '중상' 응답자 비율 % of People Saying 'Upper Middle Class' as of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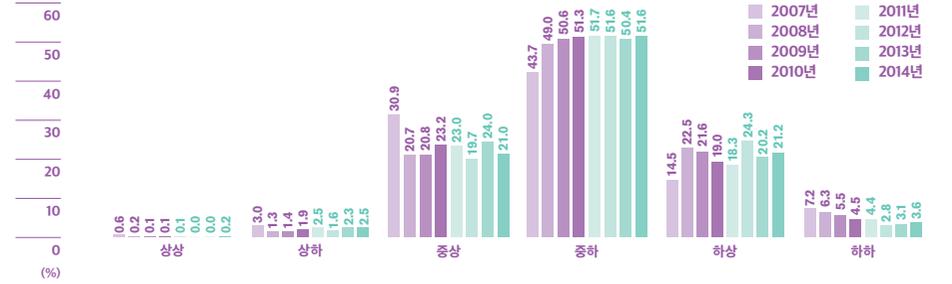
2014년 '중하' 이하 응답자 비율 % of People Saying 'Lower Middle Class' or below as of 2014



주관적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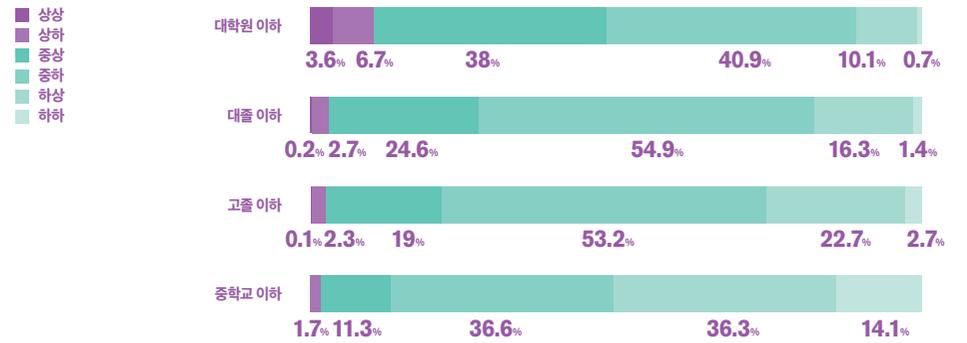
Social Class Identification by Year



학력별 주관적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Social Class Identification by Education



소득별 주관적 계층의식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Social Class Identification by Income



서울은 안전한 도시인가?

Safety of Seoul: How Safe

2014년 서울의 흉악사건(강도, 살인) 발생건수는 총 501건으로 이중 살인이 158건, 강도가 343건이었다. 지난 15년간 서울의 흉악사건은 2009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의 발생 추이 역시 두 차례의 반등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던 청소년 범죄는 2005년부터 반등하여 2007년에 정점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의 반등을 제외하면 2014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총 14,479건으로 2000년의 33,288건에 비해 무려 56.5%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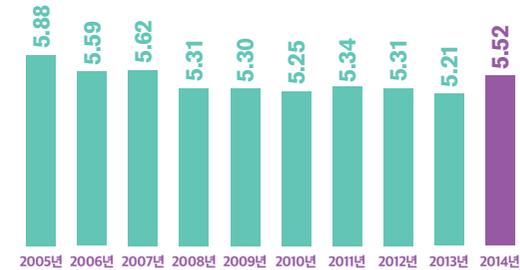
이처럼 서울의 범죄 발생 추이가 개선되어 온 만큼 범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역시 크게 개선돼 왔다. 2005년의 5.88점을 정점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2013년 최저치인 5.21점까지 떨어지게 됐다. 그러나 2014년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전년 대비 0.31점 증가한 5.52점을 나타냈다.

범죄두려움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Public Fear of Crime by Year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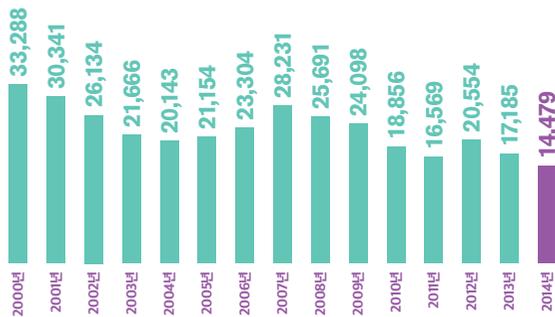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소년범죄 현황

Frequency of Juvenile Delinquency by Year

주: 개정 소년법 시행(08.6.22)으로 2008년부터는 소년법 연령을 10세이상 19세 미만 연령 적용
 ※ 2010년부터 특별법범에 속해있던 성폭력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중 성폭력 부분이 강력범으로 변경



연도별 흉악사건 발생 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5대범죄 발생현황

Frequency of Felony (Murder and Robbery)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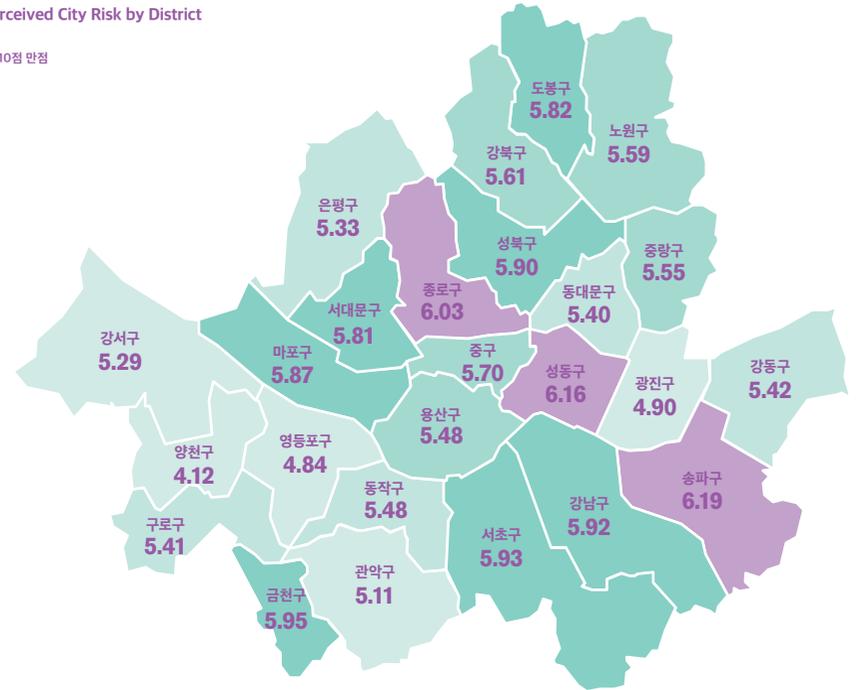


구별 도시위험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Perceived City Risk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 만족도는?

How Satisfied Are People in Seoul with Public Transportation?

하루 총 통행량에서 지하철·철도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곧 서울의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만족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2014년의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대중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종합만족도는 2008년 5.52점에서 2014년 6.47점으로 7년 동안 17.2%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교통수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택시는 5.14점에서 5.70점으로 10.9%, 지하철은 6.30점에서 6.95점으로 10.3%, 그리고 버스는 6점에서 6.78점으로 13% 증가하였다.

대중교통 종합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6.47 점



지하철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Subway

6.95 점



택시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Taxi

5.70 점



버스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Bus

6.78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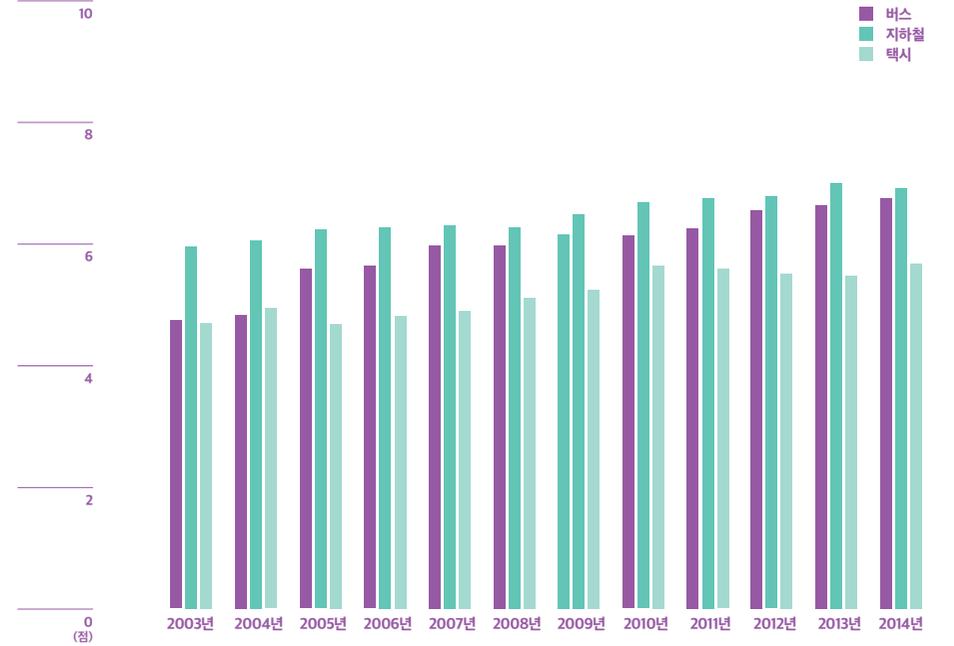


교통수단이용만족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by Mode and Year

주: 10점 만점



	버스	지하철	택시
2003년	4.76	5.99	4.72
2004년	4.85	6.08	4.96
2005년	5.61	6.26	4.70
2006년	5.66	6.30	4.83
2007년	6.00	6.33	4.92
2008년	6.00	6.30	5.14
2009년	6.19	6.52	5.27
2010년	6.16	6.71	5.67
2011년	6.28	6.79	5.61
2012년	6.58	6.81	5.54
2013년	6.67	7.03	5.50
2014년	6.78	6.95	5.70

서울시민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How Satisfied Are People in Seoul with Green Spaces?

2014년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16.4m²이지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권공원은 1인당 5.29m²로 나타났으며 구별 편차도 크다.

서울시민의 녹지 만족도는 지난 십여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서울시민의 녹지 만족도는 2008년~2012년 사이 5.48점에서 6.55점으로 19.5%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예년보다 다소 낮은 5.98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가 각각 6.59점, 6.40점, 6.29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녹지 환경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도봉구, 관악구, 강서구는 각각 5.72점, 5.76점, 5.7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

Parkland per Person in Seoul



서울시민 녹지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s as of 2014



연도별 녹지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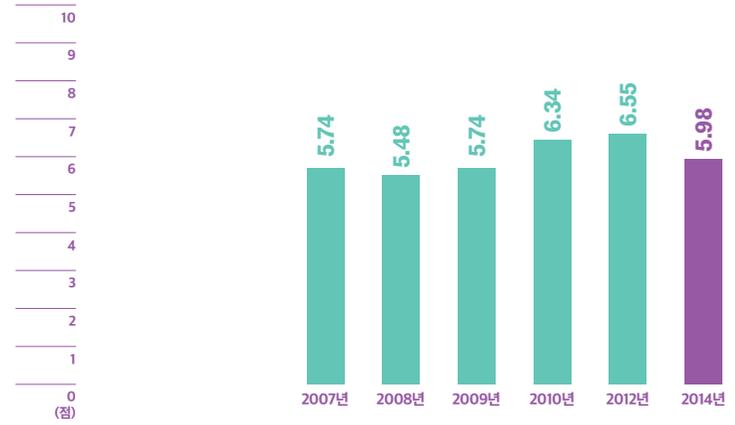
Average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s by Year

연도	(10점 만점)
2007년	5.74
2008년	5.48
2009년	5.74
2010년	6.34
2012년	6.55
2014년	5.98

연도별 녹지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s by Year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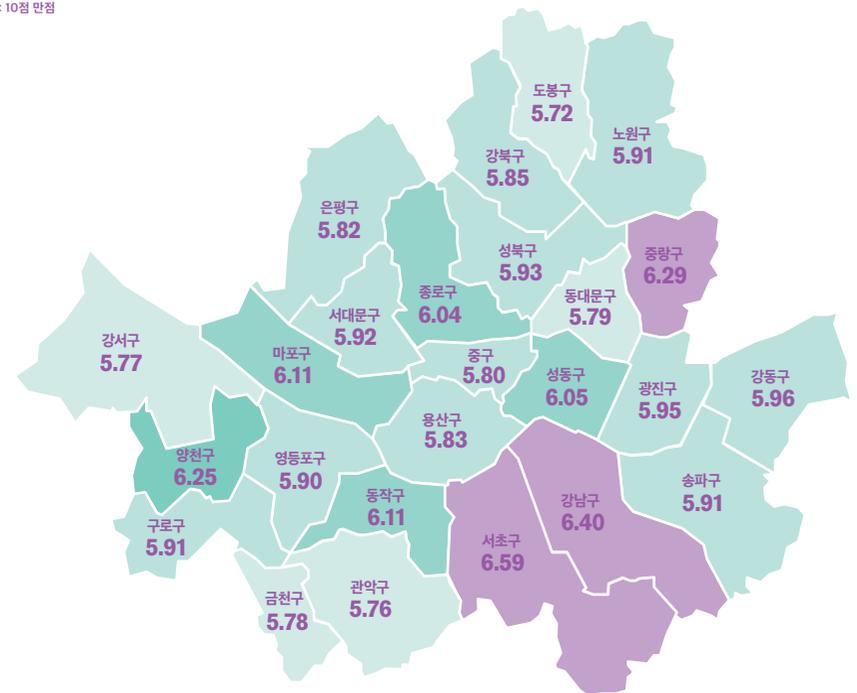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 년도

구별 녹지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s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2. 생활환경

Living Conditions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연령별 고용률은?

Female Labor Forces in Seoul

2014년 만 15세 이상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구는 총 2,383천 명으로, 2000년의 2,009천 명에 비해 18.6%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53.7%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의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에 비해 25.8% 높았으며, 14년 이 지난 2014년에도 남녀 참가율의 격차는 19.8%에 이른다.

2013년 서울 여성의 연령별 고용 추이를 살펴 보면 혼인, 출산, 육아 등이 겹치는 30~40대에 고용률이 급락하는 M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에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 Size of Female Labor Forces aged 15 or Above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Gender and Year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시 여성 연령범주별 고용률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Gender and Age Groups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4, DB웹서비스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Housing Supply Rate in Seoul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0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97.9%까지 도달하였다. 100가구 당 98개의 가용 주택이 확보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9개 자치구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악구의 주택보급률은 89.1%로 25개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았으며, 종로구, 강동구, 송파구 등 서울의 16개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주택보급률

Total Housing Units, Total Households, and Housing Supply Rate by Year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서울시 주택보급률(2014년)

Housing Supply Rate as of 2014



구별 주택보급률

Total Housing Units versus Total Households by Di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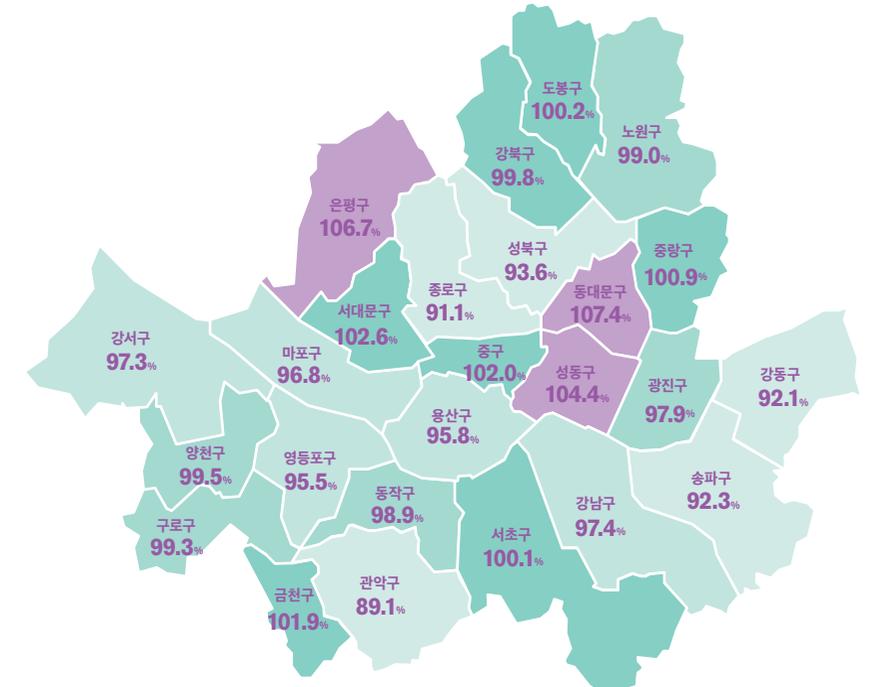
구	일반가구수	주택수
종로구	60,684	55,275
중구	44,864	45,745
용산구	96,157	92,110
성동구	103,603	108,205
광진구	140,172	137,286
동대문구	125,458	134,704
중랑구	151,095	152,468
성북구	177,555	166,234
강북구	120,828	120,571
도봉구	121,032	121,302
노원구	202,158	200,120
은평구	163,262	174,249
서대문구	108,570	111,435
마포구	146,930	142,246
양천구	159,404	158,604
강서구	207,653	202,039
구로구	151,559	150,429
금천구	87,685	89,380
영등포구	141,212	134,927
동작구	153,583	151,845
관악구	230,298	205,278
서초구	147,625	147,797
강남구	214,332	208,718
송파구	250,703	231,514
강동구	175,029	161,270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구별 주택보급률

Housing Supply Rate by District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현황 및 보급률



주택보급률이란?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100)하고 있음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가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열연 5인 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열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서울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의 변화는?

Rent and Sale Prices of Apartment in Seoul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1,61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12.2%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모든 권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역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동남권의 하락폭은 3.3㎡당 373만 원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던 반면, 서북권의 하락폭은 3.3㎡당 31만 원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2013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3.3㎡당) Average Sale Prices of Apartment as of 2013 (per 3.3m)

1,610 만 원

연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출처: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자료

Average Sale Prices of Apartment by Year (per 3.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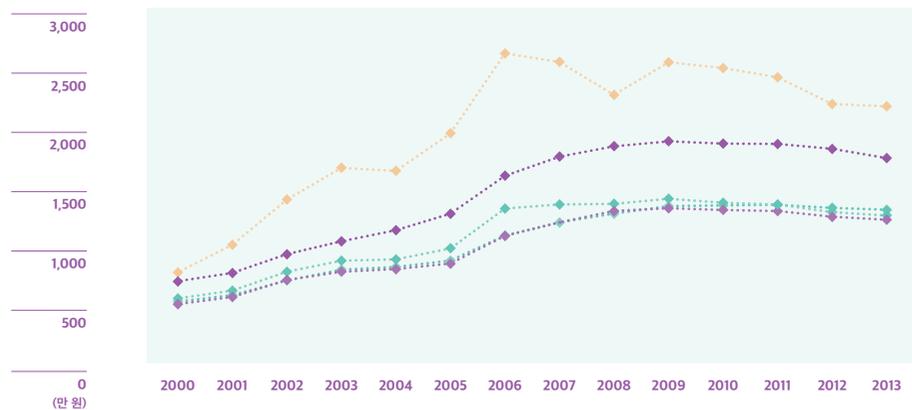


권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출처: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자료

Average Sale Prices of Apartment by Zone and Year (per 3.3m)

■ 도심권 ■ 서북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달리 평균 전세 가격은 2000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2008년부터의 상승세는 이전보다 더 가파르다. 2008년 3.3㎡당 604만 원이던 평균 전세가가 2013년에는 이보다 60.9% 증가한 3.3㎡당 972만 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모든 권역에서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 특히 동남권의 상승폭은 3.3㎡당 543만 원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던 반면 서남권의 상승폭은 3.3㎡당 294만 원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2013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Average Rent Prices of Apartment as of 2013

972 만 원

연도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출처: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자료

Average Rent Prices of Apartment by Year (per 3.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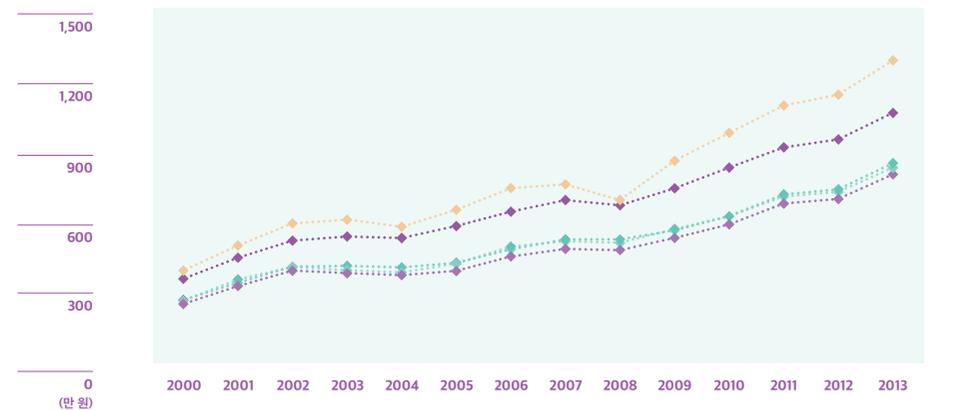


권역별 아파트 평균 전세가

출처: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자료

Average Rent Prices of Apartment by Zone and Year (per 3.3m)

■ 도심권 ■ 서북권 ■ 동남권
■ 동북권 ■ 서남권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주거형태는?

Preferred Housing Types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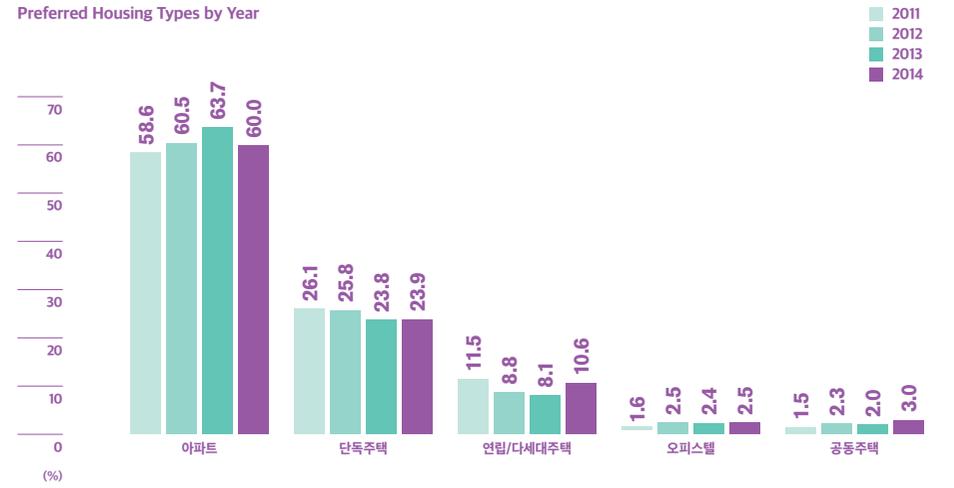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가구의 과반수인 60%가 10년 후 희망 주거 형태로 아파트를, 23.9%는 단독주택, 그리고 10.6%는 연립/다세대 주택을 선택했다. 10개 가구 중 6가구는 현재 점유 주택과 상관 없이 10년 뒤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서울 시민의 선호는 현재 점유 주택 대비 미래 희망 주택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파트에 살면서 10년 뒤에도 아파트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는 29%로 나타났다.

미래 희망 주택 형태

Preferred Housing Types by Yea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희망 주거 형태 : 아파트 % of People Preferring to Live in an Apartment



미래 희망 주택 형태

Preferred Housing Types by Year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파트	58.6	60.5	63.7	60.0
단독주택	26.1	25.8	23.8	23.9
연립/다세대주택	11.5	8.8	8.1	10.6
오피스텔	1.6	2.5	2.4	2.5
공동주택	1.5	2.3	2.0	3.0

희망주거형태 : 단독주택 % of People Preferring to Live in a Detached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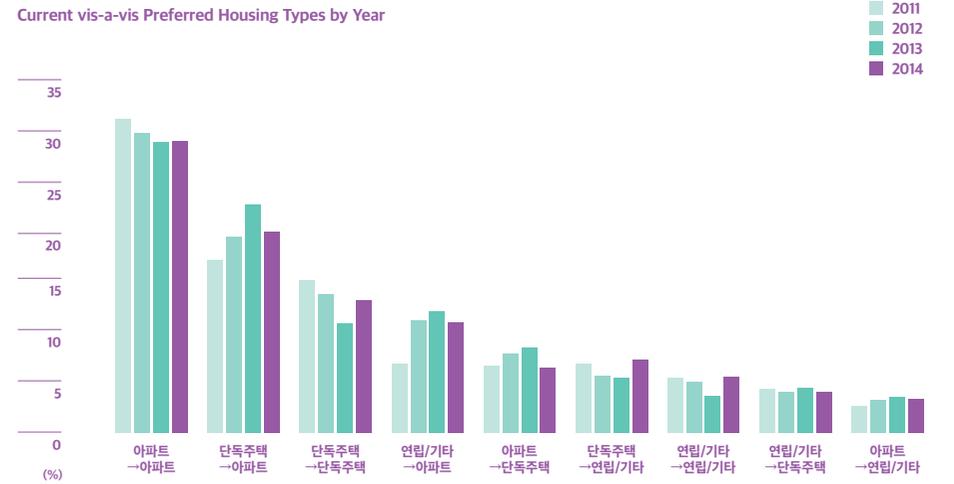
희망주거형태 : 연립/다세대 주택 % of People Preferring to Live in a Multiplex house



현재 대비 미래 희망 주택 형태 추이

Current vis-a-vis Preferred Housing Types by Yea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율은?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 서울 시민이 애용하는 수단은 바로 지하철과 철도이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하철·철도의 수송분담율은 34%이상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하철·철도의 분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6년 29.4%에서 2013년 38.8%로 17년 새 32% 증가하였다.

지하철·철도 다음으로 서울 시민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은 버스다. 버스는 1996년에 30.1%로 가장 높은 분담율을 보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3년 27.1%로 나타났다.

택시에 대한 의존도는 가장 낮다.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1996년의 10.4%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6년에는 분담률이 최저치인 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13년 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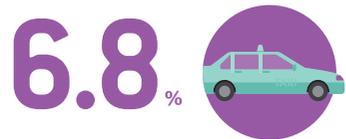
2013년 지하철·철도 수송분담율 Modal Share by Subway and City Trains as of 2013



2013년 버스 수송분담율 Modal Share by Bus as of 2013



2013년 택시 수송분담율 Modal Share by Taxi as of 2013



교통수단별 수송분담(2013년)

Modal Share by Mode as of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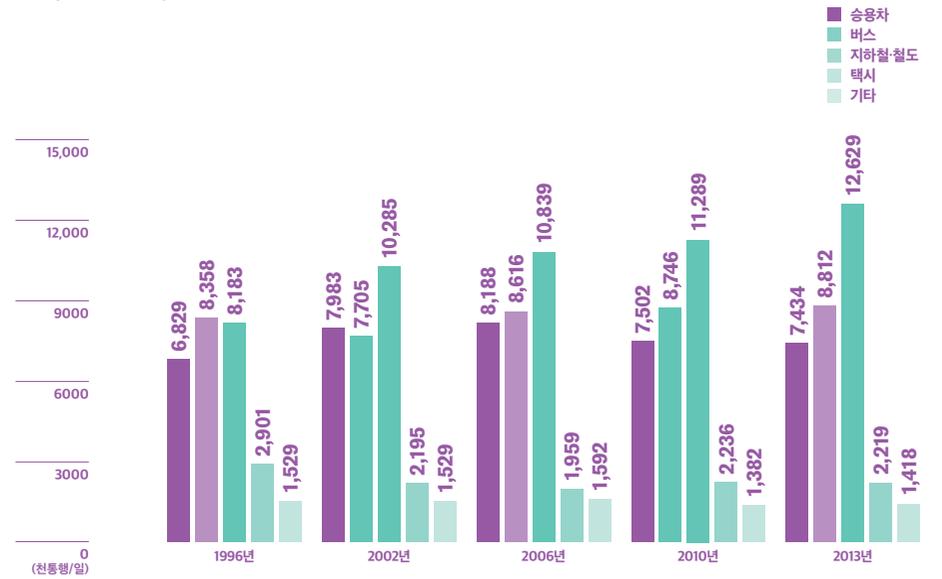
	동행량 (천통행/일)	수송분담률 (%)
총합	32,515	100.0
승용차	7,434	22.9
버스	8,812	27.1
지하철·철도	12,629	38.8
택시	2,219	6.8
기타	1,418	4.4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archives/289)

교통수단별 통행량

Transport Volume by Mode and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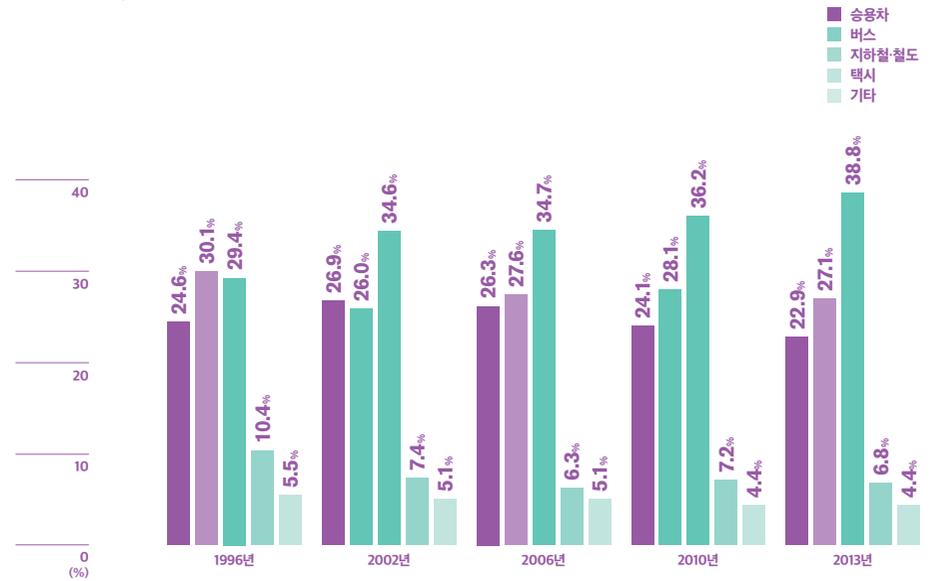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archives/289)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Modal Share by Mode and Year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archives/289)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을까?

Air Quality of Seoul: Particulates in the Air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76 $\mu\text{g}/\text{m}^3$ 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2년 41 $\mu\text{g}/\text{m}^3$ 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대기질이 이처럼 개선될 수 있었던 데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여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매연 관리를 시행해 왔고 2007년부터는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을 기존의 60 $\mu\text{g}/\text{m}^3$ 에서 50 $\mu\text{g}/\text{m}^3$ 로 대폭 강화하였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부터 50 $\mu\text{g}/\text{m}^3$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46 $\mu\text{g}/\text{m}^3$ 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표 청정 지역인 제주도의 2011년 미세먼지 수준인 42 $\mu\text{g}/\text{m}^3$ 에 거의 근접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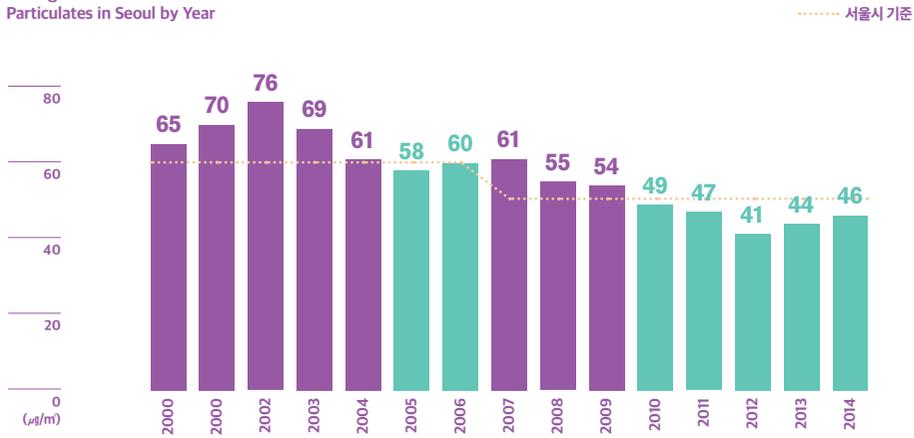
2014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in Seoul as of 2014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in Seoul by Year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서울의 NO₂ 농도는 개선되고 있을까?

Air Quality of Seoul: NO₂

화석 연료의 연소 공정 및 화학 물질 제조 공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오존을 생성하고 일산화질소보다 5-1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같은 중증 호흡기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서울의 연평균 이산화질소 농도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고 증감을 반복한다. 2007~2008년의 0.038ppm을 정점으로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감소하며 2012년에는 최저치인 0.030ppm까지 낮아졌다. 2013~2014년의 경우 0.033ppm로 2012년의 현황과 비슷하다.

2014년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 Average Concentration of NO₂ in Seoul as of 2014



서울의 NO₂ 오염

Average Concentration of NO₂ in Seoul by Year

출처: 서울시, 대기오염 현황



서울의 지하시설 공기는 깨끗할까?

Air Quality of Seoul: Underground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 철도 및 메트로의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04년 107.8 $\mu\text{g}/\text{m}^3$ 에서 2014년 81.1 $\mu\text{g}/\text{m}^3$ 로, 2007년 112.5 $\mu\text{g}/\text{m}^3$ 에서 2014년 90.4 $\mu\text{g}/\text{m}^3$ 로 20~25%가량 낮아졌다. 지하상가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2006년 64.3 $\mu\text{g}/\text{m}^3$ 에서 2014년 50.6 $\mu\text{g}/\text{m}^3$ 으로 22% 감소했다. 지하 역사와 상가의 공기 오염도 모두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기준인 140 $\mu\text{g}/\text{m}^3$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지하시설 미세먼지 기준 City Limits for Particulates in Underground Facilities



2014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도시철도공사
Underground Air Quality: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2014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지하상가
Underground Air Quality: Underground Shopping Complex



2014년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서울메트로
Underground Air Quality: Seoul Metro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도시철도공사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by Year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서울시 기준 : 140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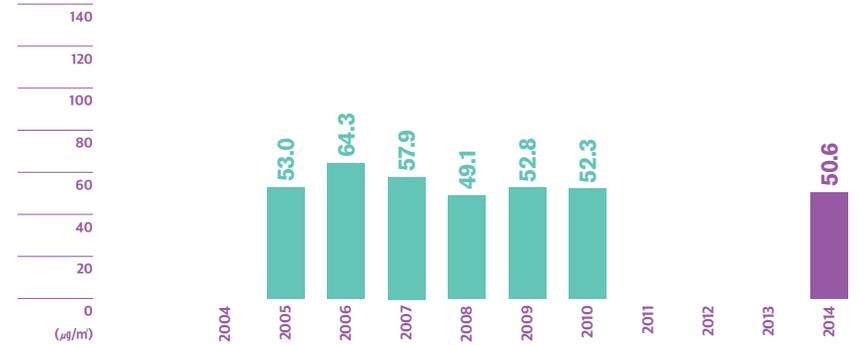


출처: 서울 메트로시티,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지하상가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by Year: Underground Shopping Complex as of 2014

(서울시 기준 : 140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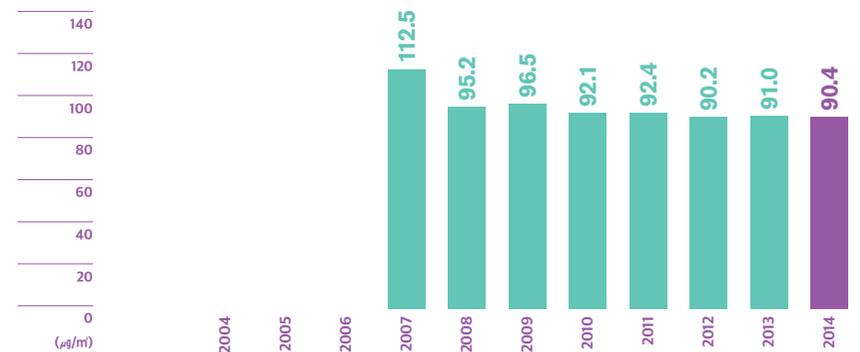


출처: 서울 메트로시티,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

지하시설 실내 공기질: 서울메트로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by Year: Seoul Metro

(서울시 기준 : 140 $\mu\text{g}/\text{m}^3$)



출처: 서울 메트로시티,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역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공기질 측정

III. 서울의 웰빙

Wellbeing in Seoul

-
- ◆ 서울시민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 ◆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 ◆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 ◆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III. 서울의



72.0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
Average Happiness Scale

7.16

건강 만족도 평균
Average Satisfaction
with Health



38.3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
% of People Exercising
Regularly



62.9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체감 비율
% of People Stressed
out for the Last 2 Weeks

Wellb

서울시민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How Happy Are People in Seoul?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

Average Happiness Score

72.0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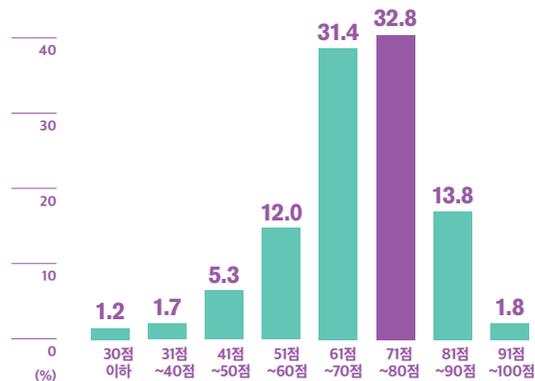
서울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는 2014년 기준 72.03점을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2.8%가 71점~80점에 그리고 31.4%는 61점~70점 사이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행복 지수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74점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40대부터는 하락세를 보여준다. 특히 50대에서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행복 지수의 급격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행복 지수 역시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결혼과 행복의 상관관계이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근소한 차이이나 1.14점 높은 행복 지수를 나타냈다. 한편, 기혼자는 배우자와 이혼/별거 또는 사별한 사람보다 각각 7.70점, 9.21점 높은 행복 지수를 보여준다. 혼인 상태에 따른 행복 지수의 단순 비교 결과만 볼 때 결혼이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결혼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보다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행복 지수별 응답자 비율

Distribution of Happiness Scor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학력과 소득별 평균 행복 지수

Happiness Score by Education and Incom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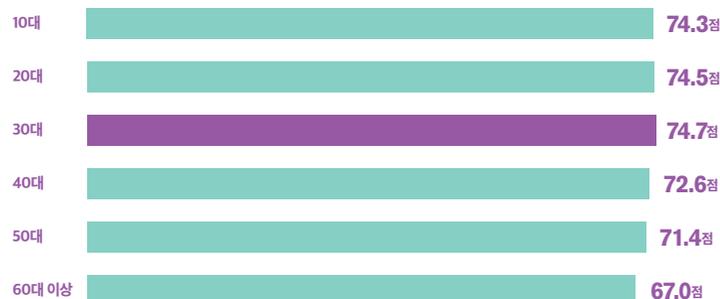
단위: 100점 만점



연령별 행복 지수

Happiness Score by Age Groups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결혼상태에 따른 행복 지수

Happiness Score by Marital Status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서울시민은 지난 2주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Healthy Seoul: How Stressed Out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상에 생기를 주고 성취 욕구와 에너지를 일깨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장애를 야기한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가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체감하였고 이 중 12.7%(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8%에 해당)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응답자 중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200~300만 원 구간을 전후로 비율이 상승, 하락하는 역U자 추이가 그려졌다. 학력별로는 고학력군일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체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체감 % of People Stressed out during the Last 2 Wee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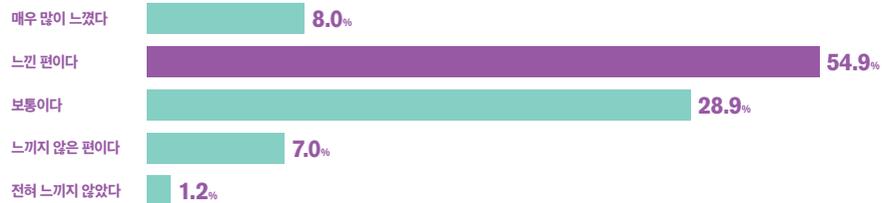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체감 % of People Stressed out Extremely during the Last 2 Weeks



지난 2주간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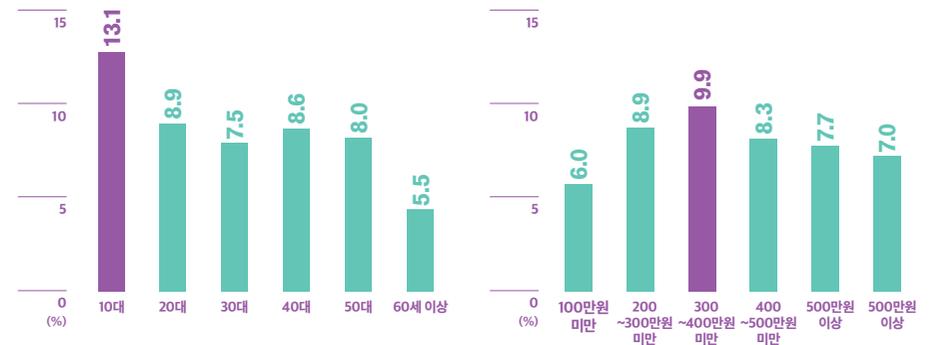
Stress Level during the Last 2 Weeks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연령과 소득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 사람 비율

% of People Stressed out Extremely by Age Groups an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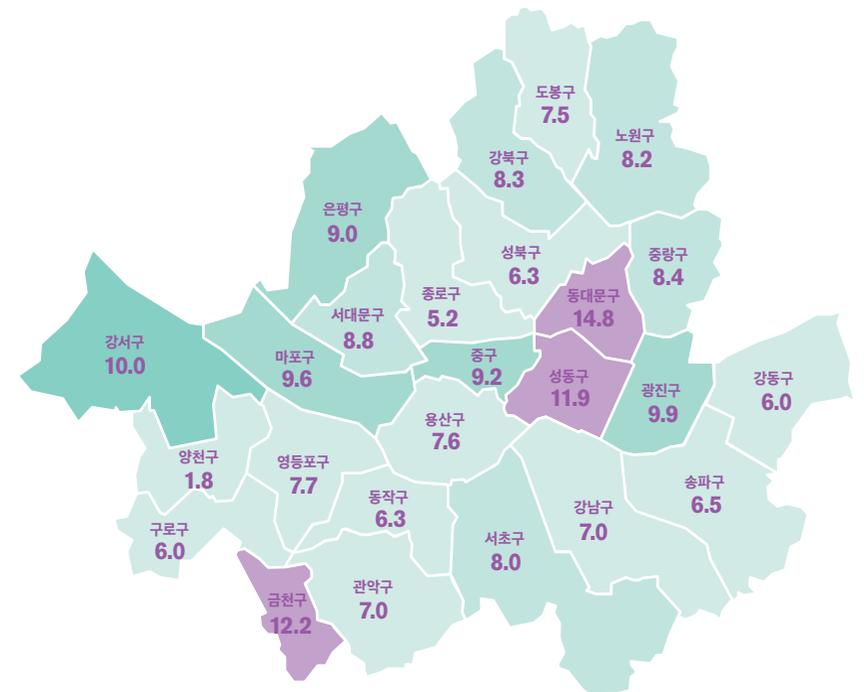


구별 지난 2주간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 사람 비율

% of People Stressed out Extremely by District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단위: %)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까?

How Satisfied Are People in Seoul with Their Own Health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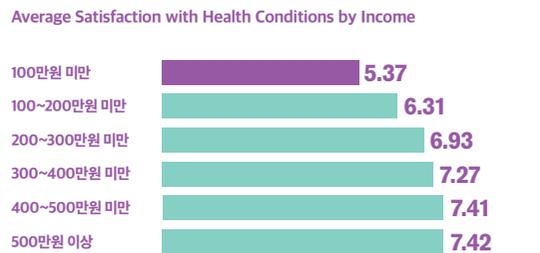
건강 만족도 평균점 Average Satisfaction with Health Conditions



평균 건강 만족도 최고점 Highest Satisfaction in Yeongdeungpo District



소득별 건강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Health Conditions by Incom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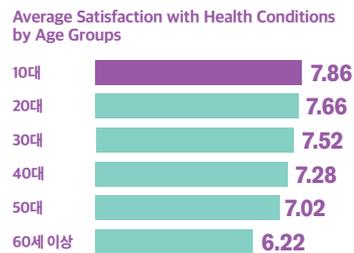
2014년 서울시민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는 평균 7.16점이었다. 이는 가정생활, 유대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재정상태와 같은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높은 만족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의 평균 만족도가 각각 7.76점, 7.74점, 7.66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금천구, 강북구, 강서구가 각각 6.46점, 6.60점, 6.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서울시민은 소득이 높은 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이 7.4점으로 가장 높은 건강 만족도를 나타냈다(500만원 이상 7.42점, 400~500만원 7.41점). 반면 1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건강만족도는 5.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100~200만원 소득계층은 6.31점, 200~300만원 6.93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령연령층의 건강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건강만족도는 6.22점, 50대는 7.02점으로 7점 이하의 건강만족도를 나타냈으며, 40대 7.28점, 30대 7.52점, 20대 7.66점, 10대 7.8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주거환경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Health Conditions by Age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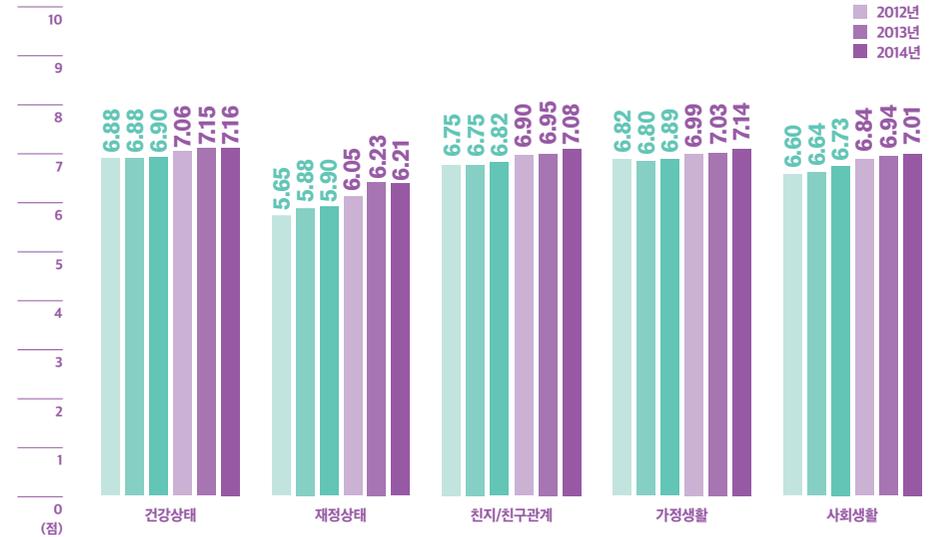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부문별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by Domain and Year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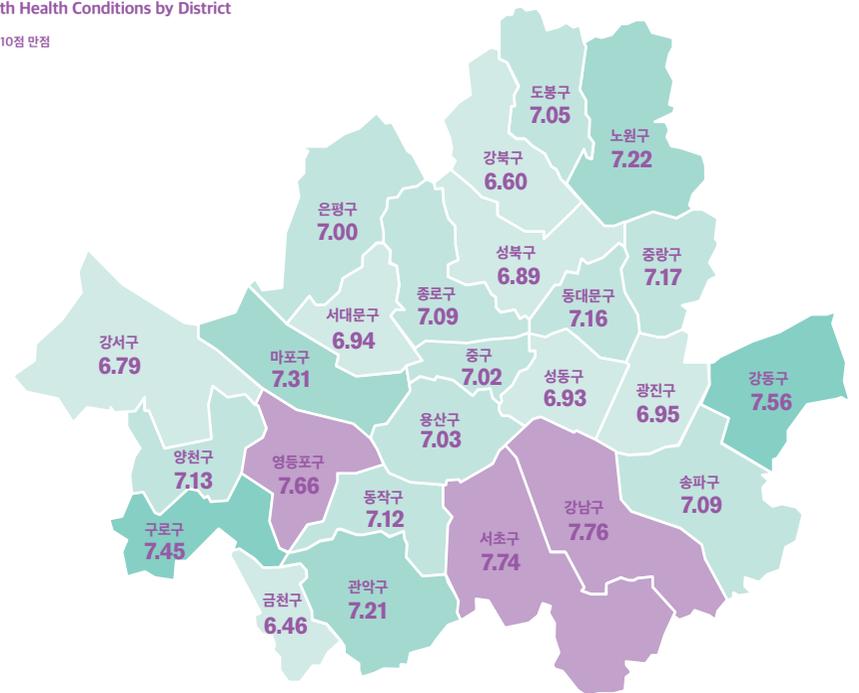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구별 평균 건강 만족도

Average Satisfaction with Health Conditions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Healthy Seoul: How Regularly Do People Exercise on a Weekly Basis?

서울시민의 건강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 3회 이상 또는 주 1~2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16.9%, 21.4%로 나타났으며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응답자는 각각 33.2%, 28.5%에 달했다.

규칙성 여부를 떠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54.3%는 공원 및 산 등의 자연 산책로를 이용하며, 전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4.7%를 차지하였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44.7%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39.8%는 개인의 기호 문제로 운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운동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of People Regularly Exercising Once a Week or More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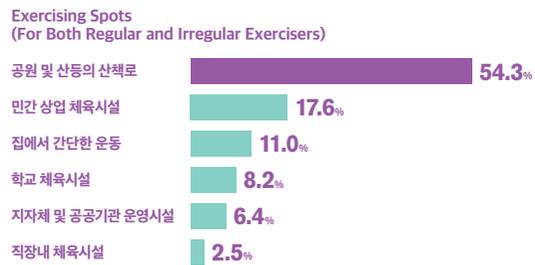


% of People Irregularly or Rarely Exerc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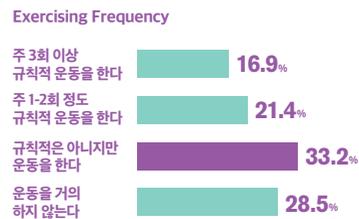
61.7%



주 운동 장소(규칙+비규칙 운동자 기준)



규칙적 운동 현황



비운동 이유(비운동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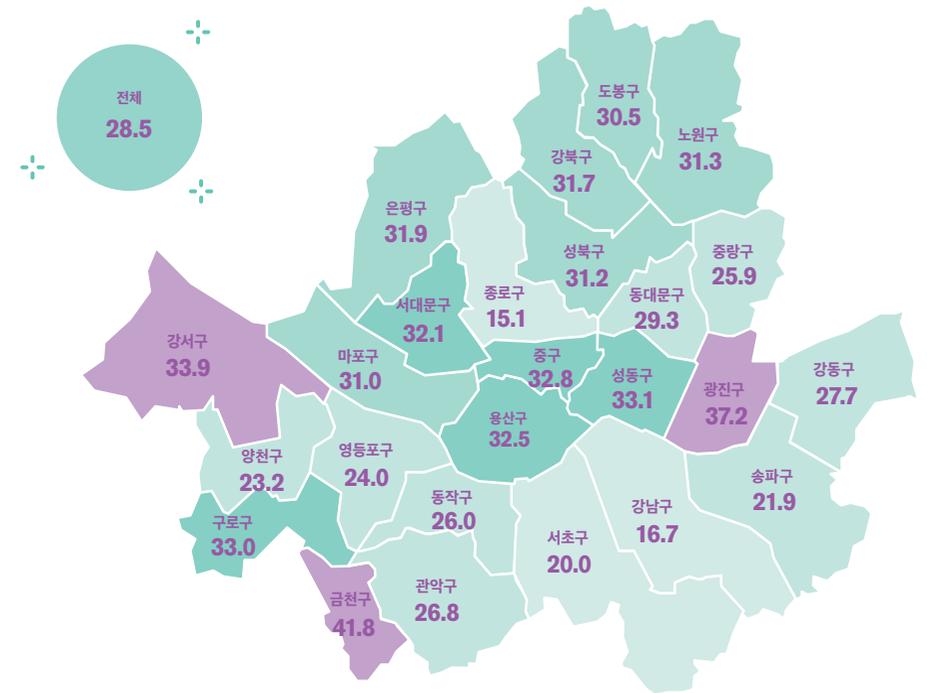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비율

% of Non-Exercisers by District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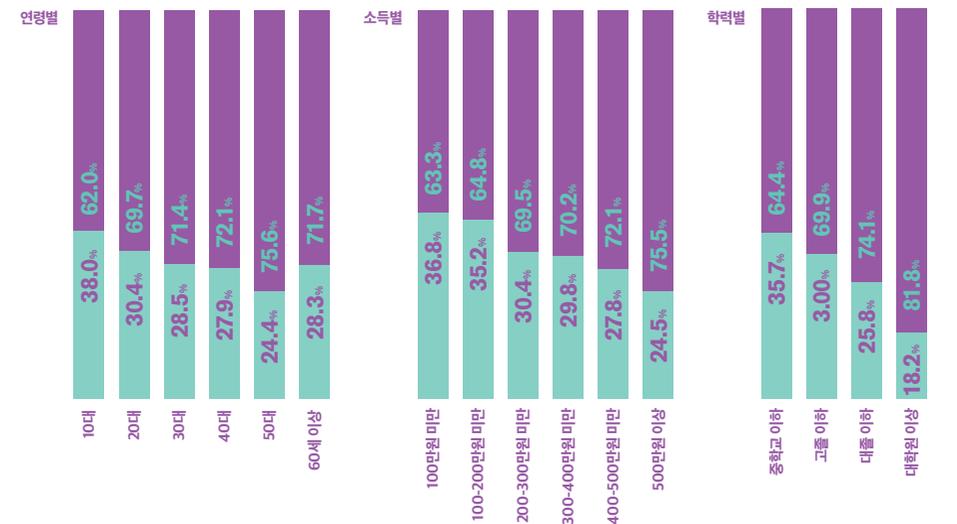


연령,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 of Exercisers by Age Groups, Income, and Education

■ 운동 기피자
■ 운동 비기피자



주: 운동 기피자('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응답자), 비기피자('규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운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응답자)

IV. 서울의 시민의식

Citizenship in Seoul

-
- ◆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 ◆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 ◆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 ◆ 서울시민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 ◆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 ◆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 ◆ 청장년층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현주소는?

IV. 서울의

13.4

자원봉사 참여율
Volunteering Rate

46.9

기부 참여율
Donation Rate

6.14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
Approval of My Kid's Mingling
with Disabled Kids



5.06

증세분담 의사
Willingness to Bear Extra
Tax Burden to Expand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5.99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
Endorsement of More Institutional
Reforms to Boost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5.54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 신뢰도
Average Trust in Neighbors

5.08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Average Trust in
Public Institution

Citizen in Seo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Volunteering: How Participating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은 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줄어 들고 있는 추세다. 2014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3.4%로,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1.2% 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가 각각 19.2%, 19.2%, 18.6%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반면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의 참여비율은 각각 5.7%, 6.6%, 8.0%로 가장 낮았다.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 분야별 참여 횟수로는 복지 시설, 병원 등 소외계층 관련 봉사 활동이 연평균 4.3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 교육, 재능 기부와 같은 문화 예술 봉사 활동이 연평균 3.90회, 자녀교육 관련 봉사 활동이 연평균 3.89회, 그리고 청소 및 쓰레기 줄기와 같은 환경보전 봉사활동이 연평균 2.94회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Overall Volunteering Rate as of 2014

13.4%



10대 자원봉사 참여율

Highest Volunteering Rate among Teenagers

43.1%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Volunteering Rate by Income



활동분야별 연평균 참여 횟수

Average Volunteering Frequency by Field and Year

연도	환경 보전 관련	자녀 교육 관련	기타 소외 계층 관련	문화 예술 관련	기타
2012년	2.61	3.39	3.39	2.78	
2013년	2.68	4.50	3.44	2.60	
2014년	2.94	3.89	4.33	3.90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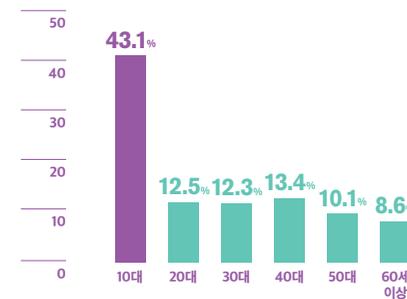
Volunteering Rate by Year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Volunteering Rate by Age Groups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Volunteering Rate b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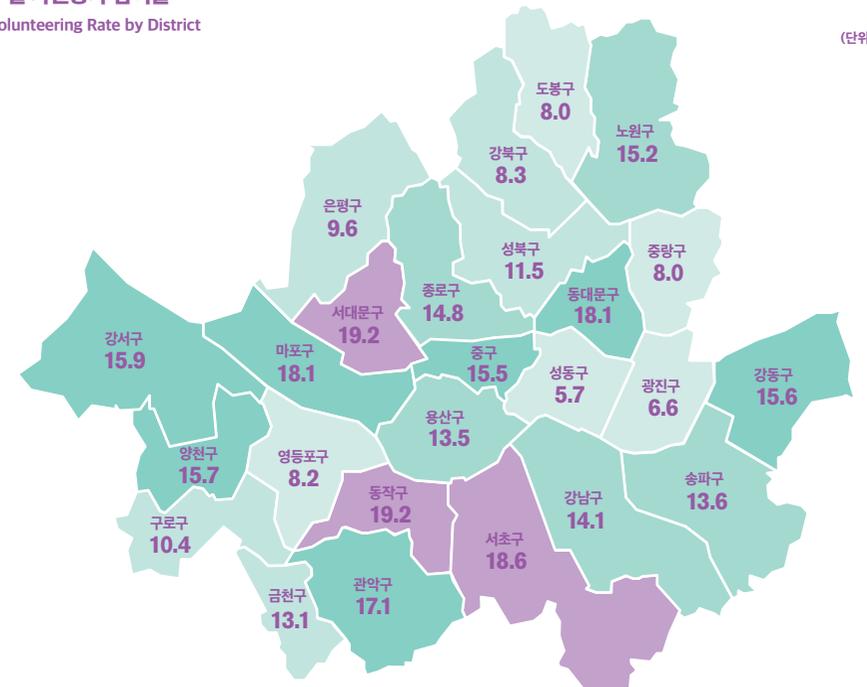


구별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Volunteering Rate by District

(단위: %)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Donation: How Participating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2014년 서울 시민의 46.9%가 기부에 동참했는데 이는 2013년보다 11.4% 포인트 증가했으며, 2009년~2014년 사이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연령별로는 30대를 전후로 참여 비율이 증가, 감소하는 역U자형 추이가 발견되었다. 기부 형태를 살펴보면 ARS 또는 현금 직접 납부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의 참여자 비율이 각각 29.7%, 34.7%, 37.8%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종로구, 서초구, 중랑구의 비율은 각각 58.6%, 57.7%,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민의 기부 참여율

Overall Donation Rate in Seoul as of 2014

46.9%



종로구 기부 참여율

Highest Donation Rate in Jongno District

58.6%

도봉구 기부 참여율

Lowest Donation Rate in Dobong District

29.7%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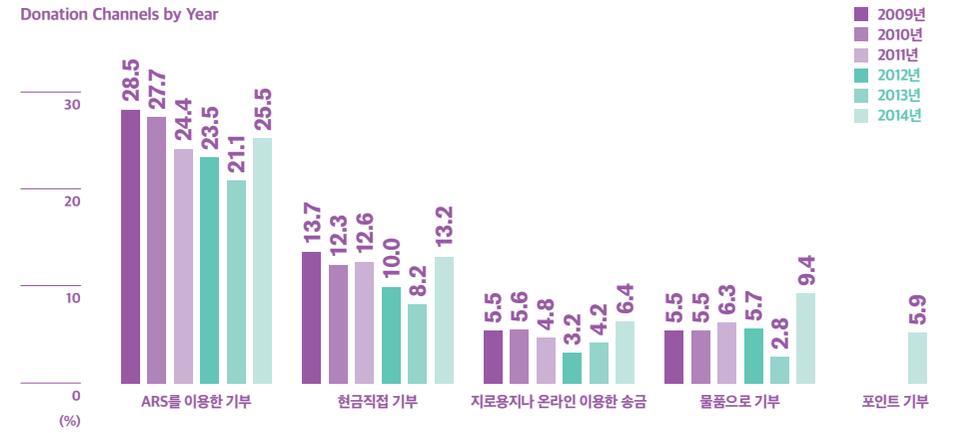
Donation Rate by Year



연도별 기부 형태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Donation Channel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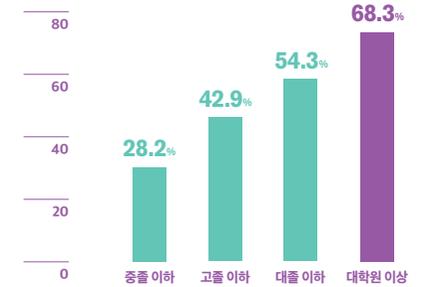
연령별 기부 참여율

Donation Rate by Age Groups



학력별 기부 참여율

Donation Rate b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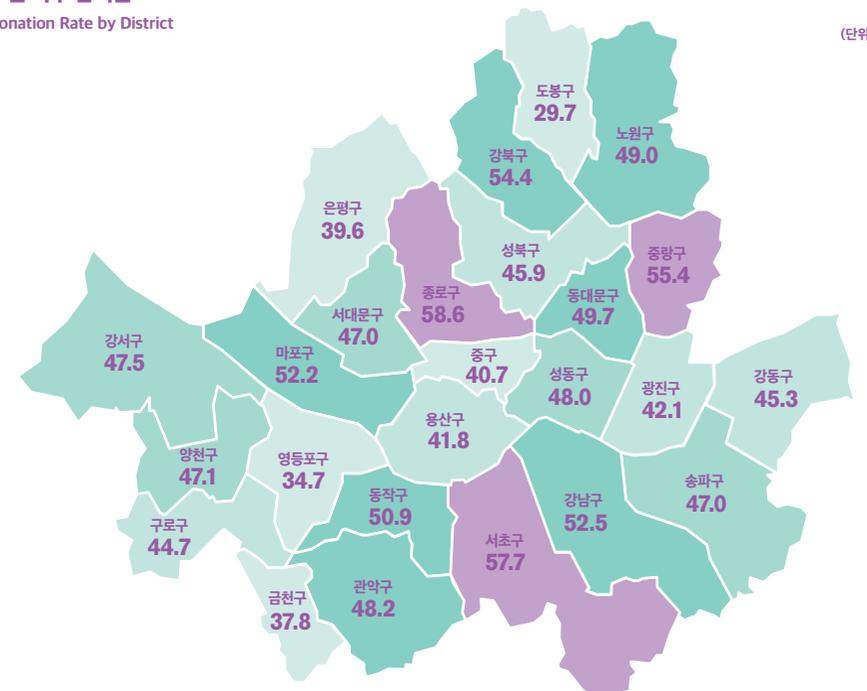


구별 기부 참여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Donation Rate by District

(단위: %)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Attitudes toward Disabled Kids: How Welcoming

장애인과의 스스럼없는 교류, 즉 어울림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 시민의 태도는 2014년 6.14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년(2010년~2013년) 사이의 추이와 크게 대조되는 긍정적 결과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의 평균 점수가 각각 5.48점, 5.55점, 5.56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종로구, 노원구, 마포구가 각각 7.08점, 6.78점, 6.69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

Approval of My Kid's Mingling with Disabled K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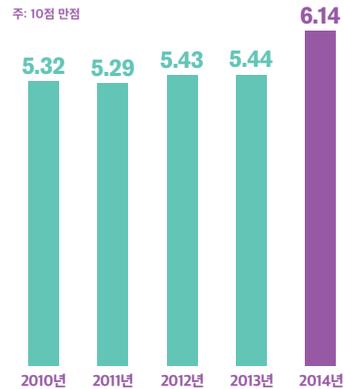


장애아와 내 아이의 어울림에 대한 종로구민의 태도

Most Welcoming Attitudes in Jongno District



‘내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I Do Not Mind My Kid's Mingling with Disabled K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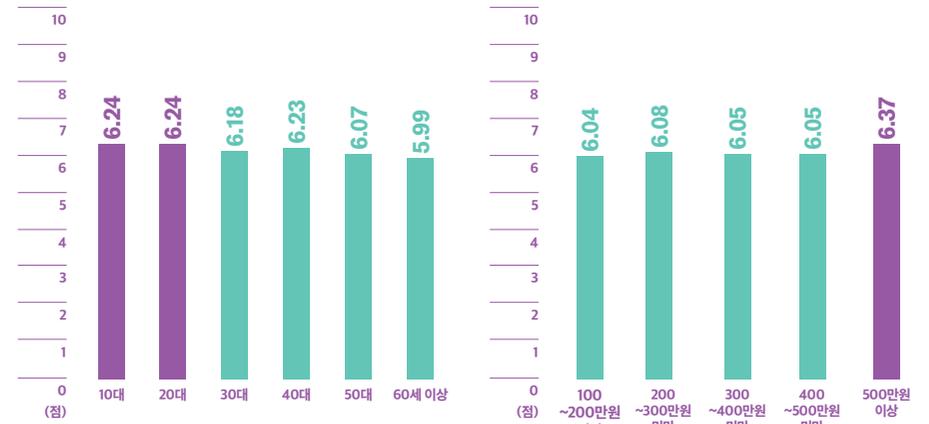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령별, 소득별 장애아에 대한 인식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Welcoming Attitudes by Age Groups and Income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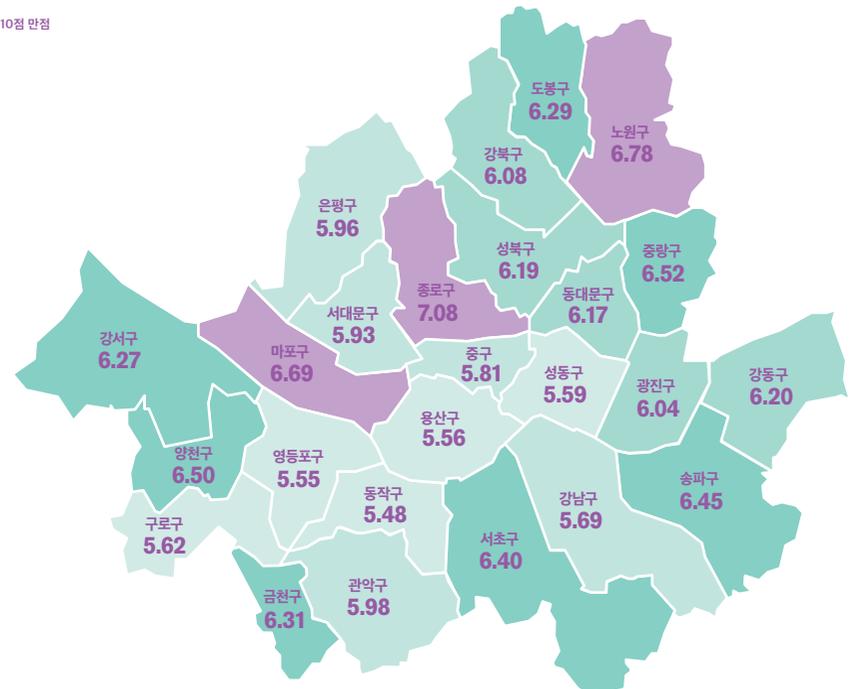


구별 장애아에 대한 인식 점수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Welcoming Attitudes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Attitudes toward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How Welcoming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
Endorsing More Institutional Reforms to Boost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5.99 점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남성 참여율과의 차이도 2000년 25.8% 포인트에서 2014년 19.8%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 포인트에 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의 6.27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2014년 5.99점까지 낮아졌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성북구, 강동구의 평균 지지도가 각각 5.38점, 5.49점, 5.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가 각각 6.77점, 6.50점, 6.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More Institutional Reforms Are Necessary in Order to Boost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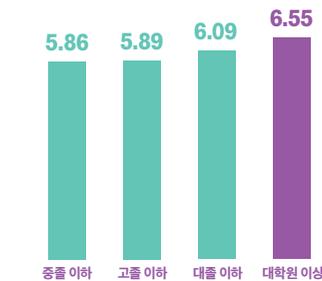
주: 10점 만점



학력별

Welcoming Attitudes by Education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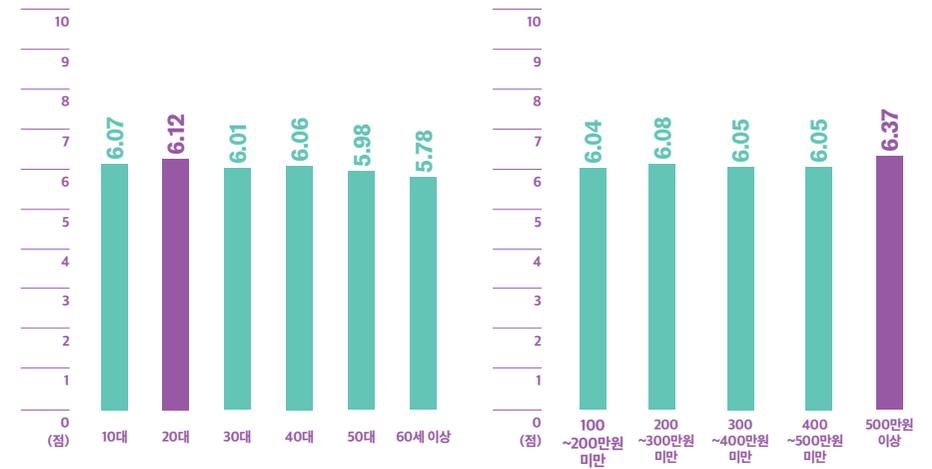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연령별, 소득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Welcoming Attitudes by Age Groups and Income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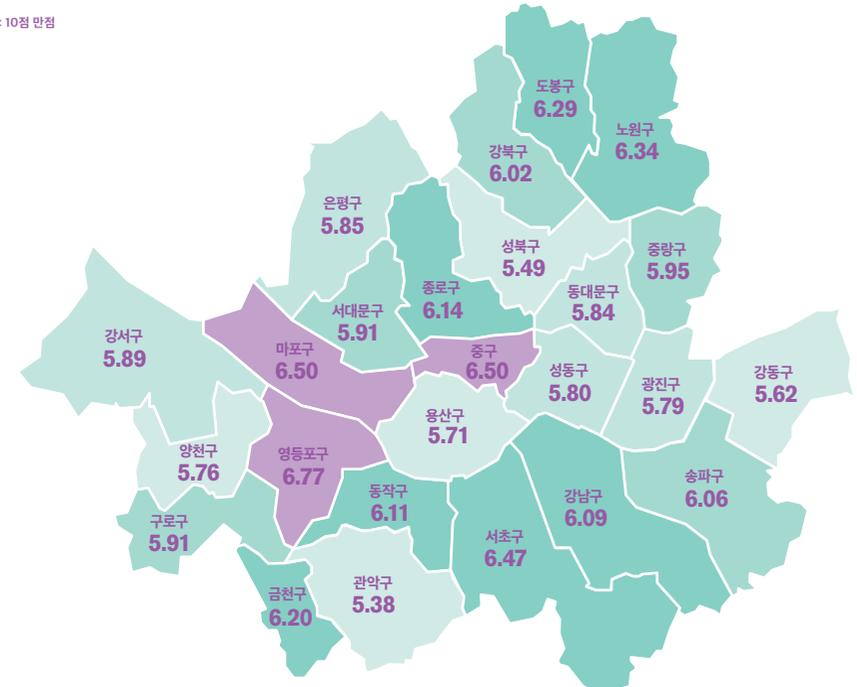


구별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Welcoming Attitudes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이웃을 신뢰할까?

Trust in Neighbors

서울시민의 이웃에 대한 평균 신뢰도

Average Trust in Neighbors as of 2014

5.54 점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

% of People Saying They Trust Their Neighbors

39.9 %

이웃을 불신한다고 답한 응답자

% of People Saying They Distrust Their Neighbors

1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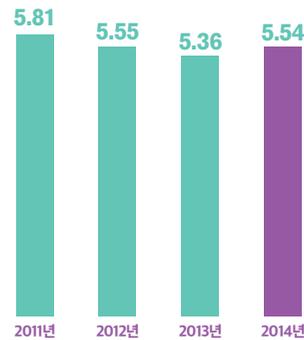
신뢰는 배려, 공존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조건이다. 신뢰의 대상이 유독 가족으로 편중되는 우리 사회에서 타인과 공공 전반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신뢰의 확충은 사회 통합의 전제 조건이자 통합의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2014년 서울시민의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54점으로 가족의 8.80점에 비해 3.26점 낮게 나타났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9%에 불과하고 보통과 불신의 비율은 각각 41.2%와 18.9%였다. 응답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성동구, 중랑구, 강남구의 이웃 평균 신뢰도가 각각 5.05점, 5.24점, 5.24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중구, 동작구, 성북구의 평균은 각각 6.15점, 6.02점, 5.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이웃 신뢰도

Average Trust in Neighbors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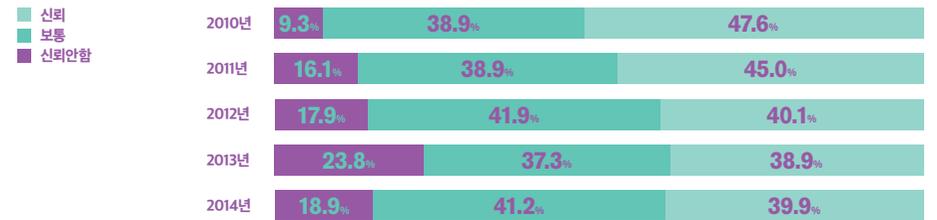
주: 10점 만점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도별 이웃 신뢰 비율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Trust in Neighbors by Year and De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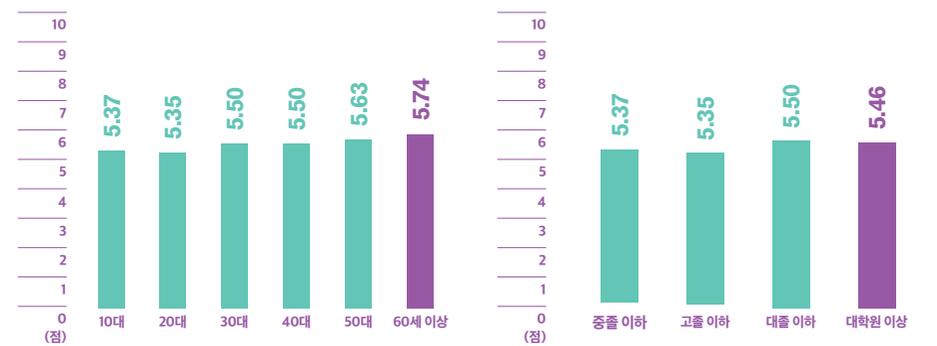


연령, 학력별 이웃 신뢰 부문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verage Trust in Neighbors by Age Groups and Education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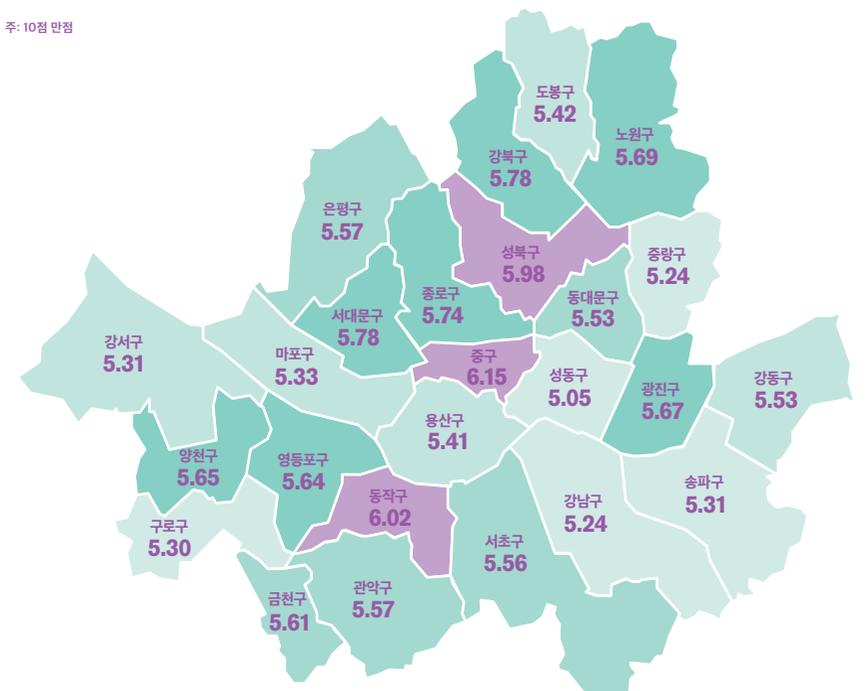


구별 이웃 신뢰도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verage Trust in Neighbors by District

주: 10점 만점



서울시민은 공공기관을 신뢰할까?

Trust in Public Institution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Average Trust in Public Institution

5.08 점



양천구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Highest Trust in Public Institution in Yangcheon District

5.99 점

2014년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5.08점으로 가족의 8.80점에 비해 3.72점, 이웃의 5.54점에 비해 0.46점 더 떨어진다.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2.8%, 불신과 보통이 각각 28.5%, 38.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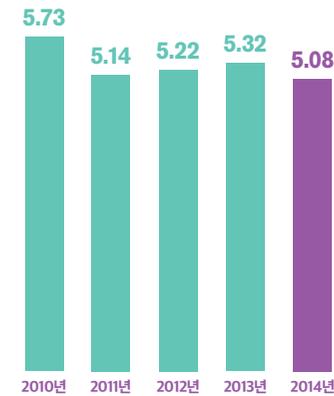
연령별 추이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신뢰도가 떨어지다 40대부터 반등하여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를 정점으로 대졸 이하까지 신뢰도가 하락하다 대학원 이상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는 강북구, 강서구, 용산구의 평균이 각각 4.41점, 4.57점, 4.61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양천구, 동작구, 은평구의 평균은 각각 5.99점, 5.62점, 5.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신뢰도

Average Trust in Public Institution by Year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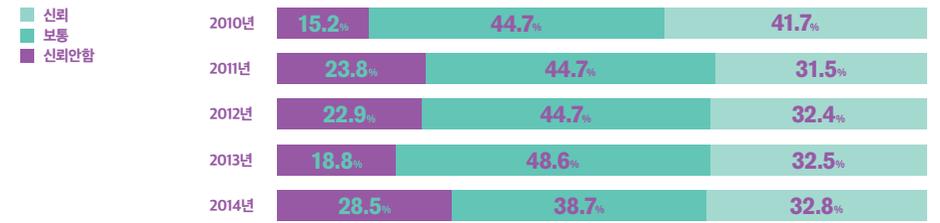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연도별 공공기관 신뢰 비율

Trust in Public Institution by Year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서베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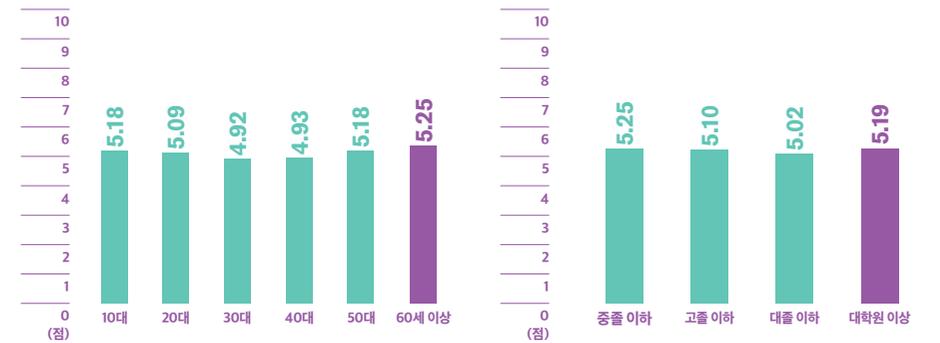


연령, 학력별 공공기관 신뢰도

Average Trust in Public Institution by Age Groups and Education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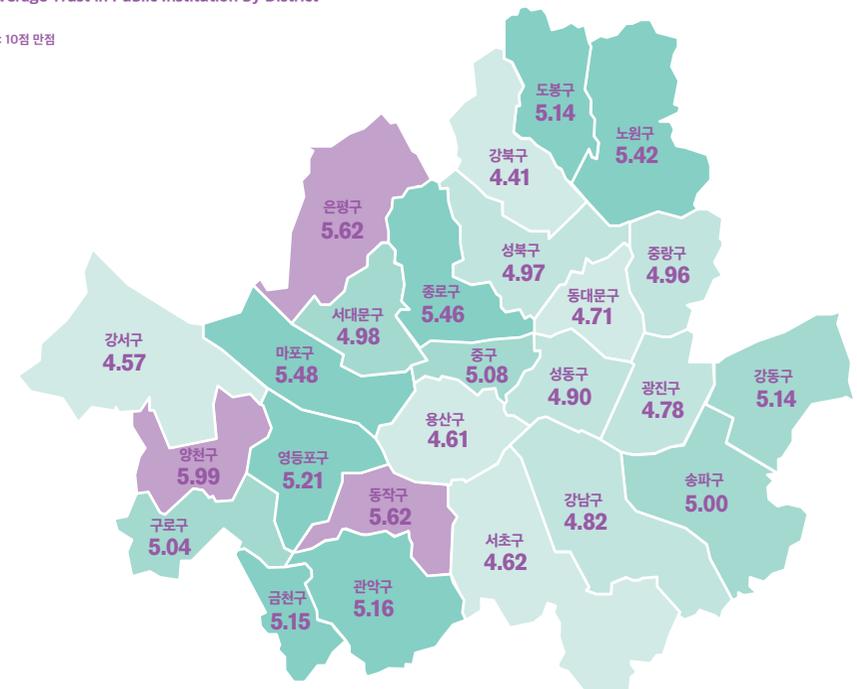


구별 공공기관 신뢰도

Average Trust in Public Institution by District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주: 10점 만점



청장년층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의 현주소는?

Young Adults Aged 25 to 34 in Seoul: Views of Social Justice

서울의 청장년(25~34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을 꼽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울의 청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사회 정의, 특히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4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육의 기회가 10점 만점에 최고점인 5.1점이었고, 나머지 평가 영역들, 특히 취업 기회, 수입과 소득, 조세 정책 등은 모두 4점 중반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

Top Two Sources of Discrimination in Korea



소득수준 % of Young Adults Choosing Income as a Source of Discrimination

51.4%

교육수준 % of Young Adults Choosing Educational Attainment as a Source of Discrimination

45.3%

대학 교육의 기회

How Equal: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5.10 점

소수자의 권리

How Equal: Rights of Min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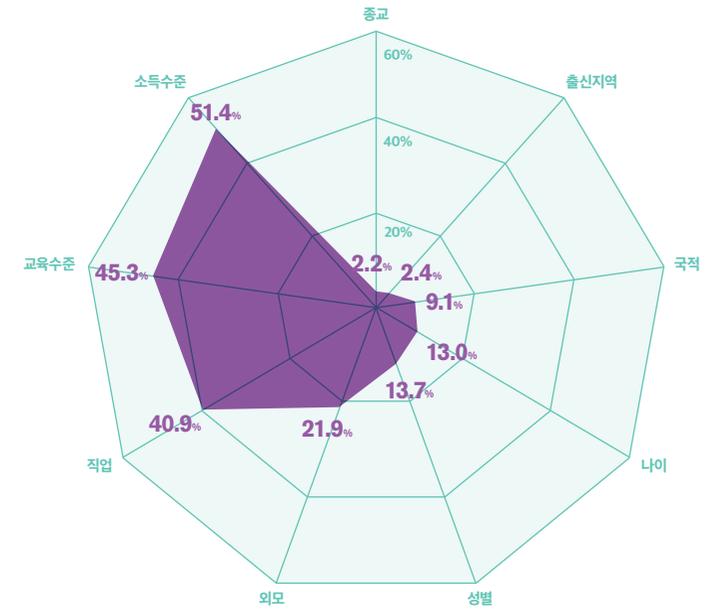
3.85 점

사회적 차별요인(청장년층)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Sources of Discrimination (Combined Rates for Top Two Choices)

주: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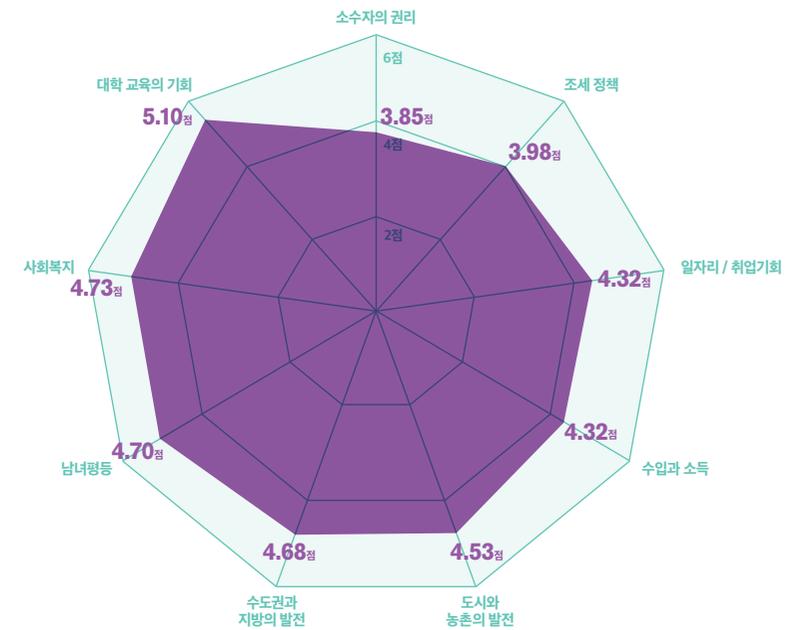


사회정의(공평성)

출처: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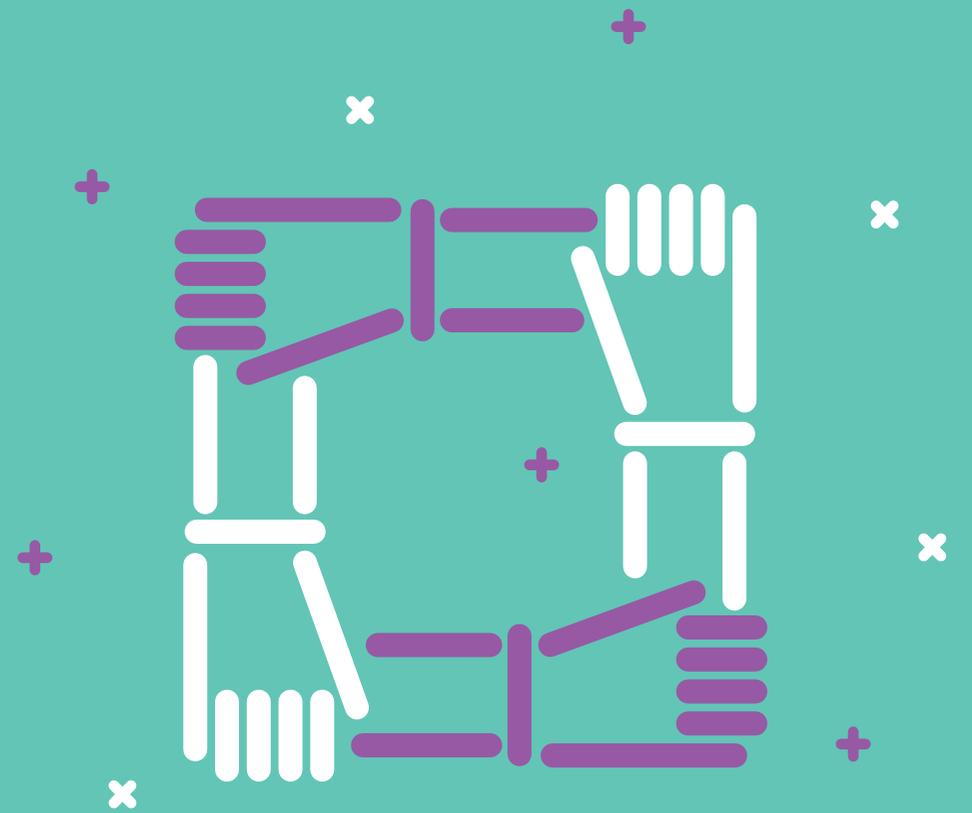
Evaluation of Social Justice by Domain

주: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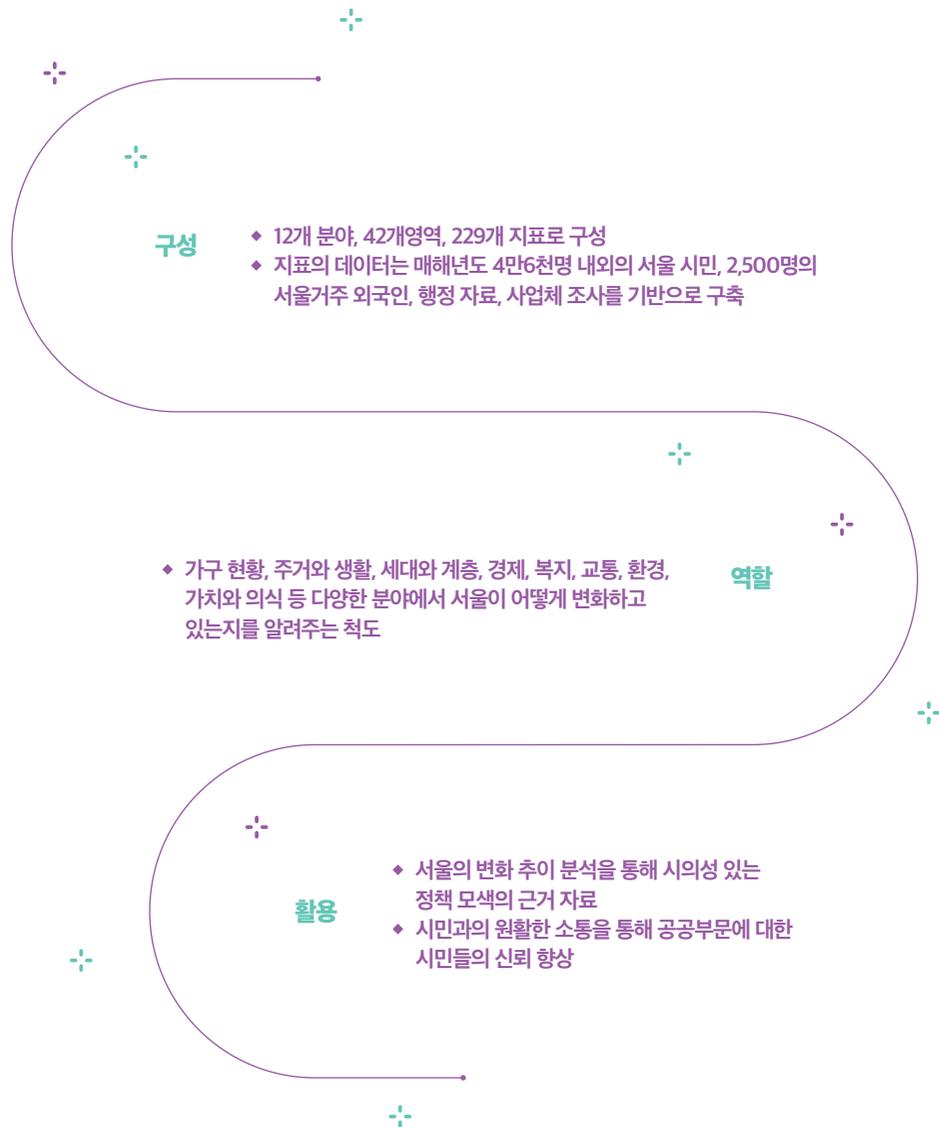
서울서베이란?

Seoul Survey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도시지표 체계

서울서베이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도시정책지표 체계이다. 지표의 자료 구축을 위해 행정자료 및 대규모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의 다차원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영향 분석을 통해 서울의 사회상과 정책 분야별 관련 아젠더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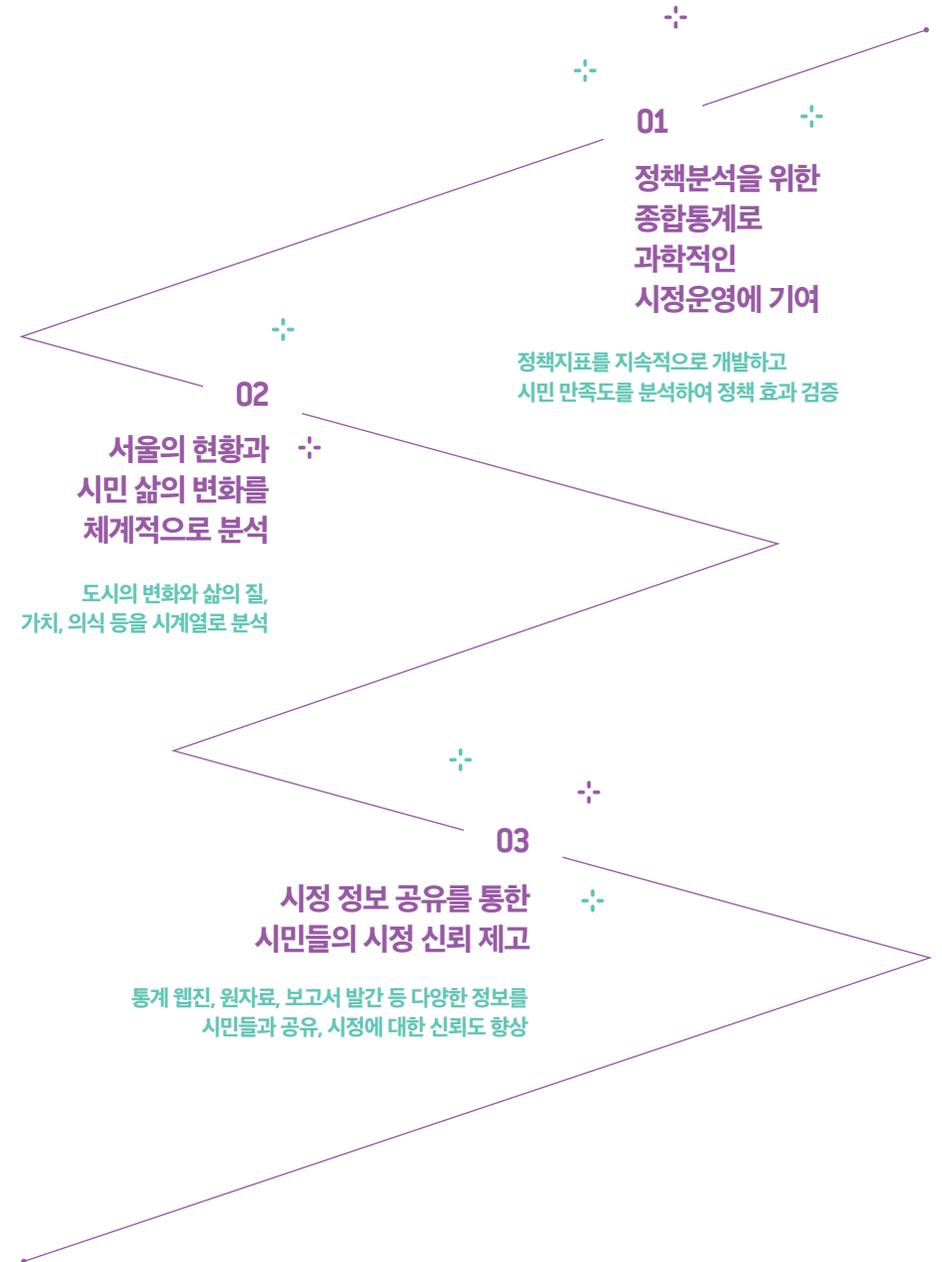
서울서베이 지표 체계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	· 서울평균인 · 서울거주 외국인	14
경제	· 경제기반 · 기업환경 · 인적자원역량 · 생활환경	34
도시발전과 주거	· 주거환경 · 생활환경 · 교육환경 · 재정수준	21
문화	· 시민문화활동 · 시민문화진흥 · 문화기반환경 · 문화시장환경	23
관광	· 도시브랜드이미지 · 관광자원 · 관광산업 · 관광서비스 · 여가관광 환경	13
복지	· 사회적 약자보호 · 건강한 삶 · 노후생활	25
여성과 가족	· 성평등성 · 건강한 가정 · 보육환경	14
환경	· 대기환경 · 수환경 · 자연환경 · 폐기물 · 환경거버넌스	21
교통	· 교통인프라 · 교통서비스 · 환경친화적 교통	23
정보와 지식	· 투명행정 · 정보활용과 소비	6
안전과 재난	· 재난안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재난대응	18
가치와 의식	· 일과소비 · 가족규범 · 시민의식	17

서울서베이 지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서울서베이의 성과



Seoul at a Glance 2015

한 눈에 보는 서울

발행처	서울특별시
제작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편집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발행일	2015년 12월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34-10
ISBN	979-11-5621-687-2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5621-687-2